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384.24 (-241.69)	849.19 (-43.08)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3.921 (-0.062)	1331.70 (-11.10)		

K-뷰티 ‘7억 인구’ 동남아 정조준 고온·자외선 차단 스킨케어 강화

CJ올리브영, 세포라와 파트너십
아시아 4개국 매장·온라인 진출
현지 생산기지 구축 가치사슬 강화

K뷰티가 차세대 전략지로 동남아 지역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내 대표 뷰티 유통사 CJ올리브영이 해외 유명 뷰티 편집숍 세포라와 협력해 아시아 주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망인디 브랜드들 역시 K뷰티뿐 아니라 이색 K콘텐츠를 선보이며 글로벌 소비층을 흡수한다. 여기에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해 K뷰티 가치사슬을 강화한다.

1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동남아 시장 대도약 중심에는 CJ올리브영이 있다. CJ올리브영은 세포라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4개 국가의 총 48개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K뷰티 에디션’을 공개한다.

세포라 말레이시아 매장 18곳, 태국 13곳, 싱가포르 9곳, 홍콩 8곳 등을 K뷰티 확산 거점으로 활용한다. 세포라라는 검증된 거대 유통망을 자렛대 삼아 국내 브랜드를 신속하게 퍼뜨리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앞서 올해 8월 미국 세포라를 통해 선보여진 브랜드들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이 한 달 만에 2배로 뛰어오르는 폭발적인 성과를 거뒀다.



10·15대책 1년… 한강벨트 거래 반토막

12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서울 전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집값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뒤 한강벨트 거래량은 반토막 난 반면 외곽 지역은 거래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9952건으로 전년 동기(6만7173건) 대비 10.7% 감소했다.

12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광고가 게시되어 있다. 서울 전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집값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뒤 한강벨트 거래량은 반토막 난 반면 외곽 지역은 거래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9952건으로 전년 동기(6만7173건) 대비 10.7% 감소했다.

/뉴시스

이번에는 동남아의 고온다습한 기후, 강한 자외선 등을 반영한 스킨케어를 집중 배치하는 등 올리브영만의 큐레이션 역량으로 K뷰티 상생 체제를 본격화한다. 특히 동남아는 전체 인구 7억 명 중 34%가 유행에 민감한 15~34세 청년층으로 구성돼 K뷰티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올해 국내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집계한 외국인 구매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태국은 상위 5위권

에 들었다. 올리브영이 글로벌 주요 판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K뷰티 대표 주자들은 사업 다각화로 K뷰티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에이피알은 동남아 법안에서도 판매고를 올렸다. <3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수출 견고하지만, 통상 등 불확실성 높아”

이형일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재정 1조 마중물, 국내외 자본 결집
3조 규모 해외건설 신 전략펀드 조성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수출 부문 호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국과의 통상 문제가 얽혀 있다며 경제 관련 위험요인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경제원팀’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변화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그는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위험요인 관련해 “첫 번째 리스크는 무역 불확화, 대미통상현안, EU(유럽연합)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등 통상 질서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라며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의 다변화를 추진해 경제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 중으로,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및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도 언급했다.

이에 대응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비축 확대 ▲해외생산 능력 구축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고위급 정상 외교를 통해 주요국과 경제 및 공급망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정상외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투자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발맞추기로 했다.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부 간 협력 등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 1조 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결집하는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이달초 수출액 261억 달러 ‘역대 최대’

관세청, 1~10일 전년비 102% 급증
반도체 수출 171% 증가 122억 달러

10월 1~10일 수출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에 비해 100% 넘게 늘었다. 10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상승 수출은 26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2.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47억5000만 달러로 28.5% 증가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3.5일에서 올해 5.5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70.9%)를 비롯해 석유제품(45.6%), 승용차(82.7%), 무선통신기기(62.6%)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크게 늘었다.

대상품목별 중국시장 수출이 167.3% 증가했다. 또 미국(159.9%)과 베트남(89.7%), 유럽연합(127.3%) 등도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5%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

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기준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전년 동기 대비 56.2%, 반도체 66.7%, 가스 125.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입은 10.9%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 84.4%, 미국 57.6%, 유럽연합 87.7%, 일본 80.1%, 대만 82.5% 등 주요국에서 모두 늘었다.

한편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5% 증가한 1209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월간 최고치였던 지난 6월 1020억 달러를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기준 16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증가한 603억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종전 최고치는 8월의 467억 달러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주병기, 대통령비서실 감찰 의혹에 “감찰 없었다” /사진 뉴시스
- ▲북,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軍 초초음속 공개 4일 만에 도발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불가피…민주당 결단만 남아”
- ▲하태경 “김정은도 안하는 총살 생중계…李, 트럼프에게 항의해야”

- ▲중수청 출범 열흘간 경찰 통보 459건…이첩 요구는 ‘0’
- ▲역사기관 통폐합에 기관장들 “전문성 훼손 우려…의견 수렴 없어”

신현송 “통화정책 독립성 흔들림 없어”

〈한국은행 총재〉

2026 국정감사

한은 연속 금리인상 판단 근거 등 쟁점 부상
신 총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미흡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8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조치가 금융시장 충격과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근원물가를 미리 제어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ETF)의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점은 사과했다.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속 금리 인상의 판단 근거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부담, 정부의 확장 재정과 통화긴축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 총재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 금리 인상으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상보다 먼저 움직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움직임에 쫓겨 뒤늦게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미리 대응하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올려 연 2.5%에서 3.0%로 높였다.

신 총재는 금리 방향을 미리 알리는 포워드 가이드런스도 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 봤다. 5~6월부터 인상 방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됐고, 실제 정책 변경에 앞서 안내함으로써 이후 더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김태연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중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부담이 내수와 지방경제에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추가 인상 필요성을 둘러싼 질의에는 유가 상승의 비용 전이와 향후 수요 압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의 원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유가·환율 등 비용 요인인데도 두 차례 금리를 올린 배경을 묻자,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가 아직 목표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은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신 총재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에 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보완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적하자 신 총재는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채우기 정책을 거론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최태원, 사회가치 보상 강조

〈SK그룹 회장〉

“‘새로운 자본주의’ 앞당겨야”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최 회장, 행복나래 등 사회적 가치 성과 공유
기업 이타심에 의존한 가치 창출 한계 지적
“정교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필수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기업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의 첫 ‘생태계 리더십 교류 프로그램(ELF)’에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상받는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타심에 의존한 참여의 한계를 들었다. 그는 “이타심에만 의존해서는 팽창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규모를 확보할 수 없다”며 “자발적 동기를 자극하는 정교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행복도시락과 행복나래, 사회적기업 MBA, 사회적가치연구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온 과정을 소개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성과 측정과 보상을 실행해 온 것이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성과는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예산 투입과 홍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측정 비용을 낮출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정밀한 가치 측정에 드는 높은 거래 비용은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성과의 측정과 보상은 최 회장이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I)의 핵심이다. SK는 2015년부터 SPI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그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생태계 리더십 교류 프로그램(ELF)’에서 연설하고 있다. /SK그룹

최 회장은 SPI를 “국가와 사회의 비용을 줄여주는 일종의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보상을 시장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WEF 슈왑재단 총회에서는 측정된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보상을 시장경제 전반으로 확대하지는 제안은 지난 8일 WEF 슈왑재단과 사회적 가치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세 번째 보고서 ‘임팩트 경제: 공사를 수요로 전환하기’에도 담겼다.

최 회장은 공동서문에서 “SK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가치가 측정될 수 있고 금융 인센티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며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규칙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상하며,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시장 실패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월드포럼과 사회적 가치연구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첫 ELF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부산에코델타시티 분양 공고

1. 분양토지: 연구시설용지(7필지), 지원시설용지(7필지), 주차장용지(10필지), 단독점포겸용(8필지)

용도	필지수	면적(㎡)	예정가격(원)	블록번호	분양방법
연구용지	7	1,727.0 ~ 2,260.0	2,226,084,000 ~ 2,913,115,140	연구6,7	추첨
지원시설용지	7	858.0 ~ 1,037.0	1,938,585,000 ~ 2,628,795,000	지원3,4	입찰
주차장용지	10	641.0 ~ 5,019.9	770,802,500 ~ 7,329,054,000	주3,4,11,12,14,22,23,46,61,62	입찰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8	292.4 ~ 489.0	678,368,000 ~ 1,068,465,000	단독7,8,9	수의

2. 분양일정

구분	연구(추첨), 지원, 주차장61.62(입찰), 온라인(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주차장(입찰)	단독주택점포겸용(수의)
	방문접수(사업단)		
분양공고	’26.10.13. ~ 10.28.		’26.10.13. ~ 12.2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	’26.10.13. ~ 10.28. 10:00		-
개찰	’26. 10. 28.		-
수익계약 개시	-		’26.10.19. 10:00
수익계약 신청	-		’26.10.19. ~ 12.21.
입주계약체결*	’26.11.03. ~ 11.24.	-	-
분양계약 체결	’26.11.26. ~ 11.27.	’26.11.2. ~ 11.4.	’26.10.19. ~ 12.24.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분양상담실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877)		

* 연구지원·지원시설용지·주차장61.62는 부산EDC 도시점단사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내에 위치하므로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 체결必

3.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의 분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 <https://www.kwater.or.kr/land>)

분양 관련문의	판매부 ☎ (051) 220-0722~4
조성공사 관련문의	공사1,2부 ☎ (051) 220-0774,7,8

2026. 10. 13.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마트 닫아도 전통시장 안 간다... 영업규제 실효성 논란

새벽배송으로 전통시장 매출 잠식 가능성 제한적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우려를 근거로 도입된 영업규제가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의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새벽배송 허용의 대가로 추진하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자금 조성 방안도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지난 2월 발주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영향 평가 용역에서 새벽배송이 전통시장 매출을 직접 잠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SSG닷컴의 새벽배송 서비스 운영 기간인 2021년 1~8월 대전 일부 지역의 상권 변화를 분석한 결과 편의점 매출은 4.5%, 슈퍼마켓은 4.0% 감소했지만 전통시장은 오히려 2.3% 증가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전통시장의 소비 수요가 중첩되는 정도가 낮으며 유통업계의 경쟁 구도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마트의 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크지 않았다. 같은 연구에서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휴업할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대체 구매처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약 41%였지만 전통시장을 찾겠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대형 유통기업들이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총 1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벽배송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연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자금 조성의 전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가 관찰된 만큼 일부 업종에 대한 영향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골목상권 전반의 피해로 일반화하거나 1000억 원이라는 자금 규모의 근거로 삼기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골목상권 위축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 관련 논의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교착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전통시장 상인단체는 새벽배송 허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휴머노이드 두뇌 잡아라... 삼성·SK, 로봇용 반도체 선점 경쟁

2030년 로봇용 D램 수요 20배 증가
AI 고도화에 저전력 메모리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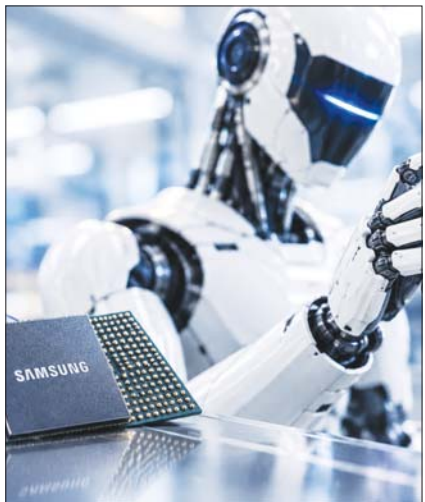
삼성, LPDDR6 성능·전력 효율 개선
SK, 엔비디아와 차세대 메모리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앞세워 로봇용 반도체 사업을 넓히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나섰다.

1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연산장치에 필요한 D램 수요는 올해 약 8300테라비트(Tbit)에서 2030년 약 17만2000테라비트로 2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로봇 한 대에 탑재되는 평균 D램 용량도 19기가바이트(GB)에서 39GB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휴머노이드 보급과 AI 고도화가 메모리 수요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로봇은



생성형 AI가 로봇과 반도체를 형상화한 이미지.

카메라와 센서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움직이는데 주변 상황을 예측하는 AI까지 적용되면서 처리할 데이터가 늘고 있다. 다만 배터리로 작동하는 로봇은 연산 성능뿐 아니라 전력 소모와 발열도 줄여야 한다. 이에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달리 전력 효율을 높인 저전력 D램(LPDDR)이 주요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 삼성, 저전력 메모리 앞세워 파운드

리까지 공략

삼성전자는 LPDDR6의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파운드리와 이미지센서를 아우르는 로봇용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의 데이터 저장부터 AI 연산과 주변 환경 인식까지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3일 퀄컴의 최신 모바일 플랫폼에서 16GB LPDDR6의 성능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7Gbps이며 이전 세대인 LPDDR5X보다 전력 효율을 최대 21% 높였다. 또 연산량에 맞춰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초당 최대 114GB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검증한 기술이지만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로봇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저전력 메모리와 이미지센서, 파운드리 등을 아우르는 차세대 로봇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 제조사의 요구에 맞춘 AI 반도체 생산까지 지원해 고객사 확보

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협력 로봇용 메모리로 확대

SK하이닉스는 AI 서버용 HBM에서 구축한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로봇용 메모리로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6월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을 포함한 장기 기술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협력 대상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베라 루빈'과 중앙처리장치(CPU) '베라', 로봇용 컴퓨팅 플랫폼 '젯슨 토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젯슨 토르는 휴머노이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AI 연산을 수행한다. 양사는 로봇의 연산 성능 향상에 맞춰 늘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플랫폼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향후 상용화에 따른 공급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메모리 사양과 상용화 일정, 공급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1면 'K-뷰티 7억 인구...'서 계속

화장품 브랜드 실적 호조 제조사도 현지 성장 가속

올해 상반기 에이피알 말레이시아 법인 매출은 약 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K뷰티에 K푸드 등을 결합해 브랜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7월 교촌 에스디엔 비에이치디와 에이피알이 운영하는 즉석 포토부스 브랜드 '포토그레이'를 교촌 치킨 말레이시아 매장에 흡인숍 형태로 설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달바 아세안 매출 404억 기록
선진뷰티 인니 지사·물류망 가동

신흥 뷰티 브랜드 달바글로벌도 권역별, 제품별 차별화 마케팅에 나섰다. 달바는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을 75%까지 끌어올렸다. 이 중 아세안 매출은 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

브랜드 흥행은 화장품 제조 및 원료를 담당하는 후방 기업들의 수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2018년부터 태국 법인 등을 운영해 온 코스맥스는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 매출은 올해 2분기 기준 2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후발 주자인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올해 7월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 지사를 설립했고 자비섬 전역을 아우르는 영업 조직과 물류창고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주가 부진에 책임경영 승부... 김동선, 1285억 공개매수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

한화M&S 보통주 1606만주 매수
주당 8000원으로 종가보다 32% 높아
개인 자금 투입해 주주가치 제고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사진)이 주가 하락과 향후 성장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에 대응해 한화M&S 주식을 공개매수한다. 한화M&S는 김 사장이 올해 11월 2일까지 22일간 보통주 1606만주를 주당 80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12일 밝혔



다. 전체 보통주의 약 19%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김 사장의 개인 자금 약 12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최근 한 달간 평균 주가인 약 6300원보다 27%, 직전 거래일인 지난 8일 종가 6080원보다 약 32% 높다.

이번 공개매수는 지난달 첫 임시주주총회에서 제기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

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화M&S는 테크·라이프 부문의 미래전략을 총괄하는 김 사장이 해당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공개매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번 공개매수를 시작으로 주주이익 확대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M&S는 한화그룹테크·라이프 부문의 지주사로, 올해 8월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돼 같은 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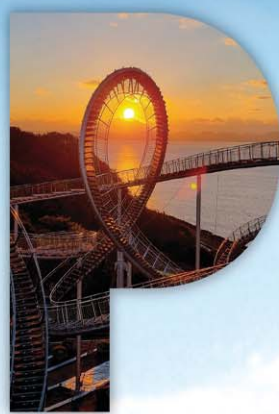
했다. 주요 계열사는 테크 부문의 한화비전·한화세미텍·한화모멘텀·한화로보틱스와 라이프 부문의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이다.

손자회사와 해외법인을 포함한 소속 기업은 총 56곳이며 202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은 약 6조원, 총자산은 11조3000억원 수준이다. 한화M&S는 각 사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에 맞춰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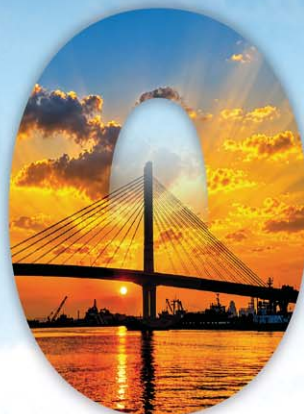
낮에는 푸른 바다, 밤에는 빛나는 도시
머무름수록 새로운 매력,

포항

지금, 포항으로
떠나세요!



스페이스워크



해오름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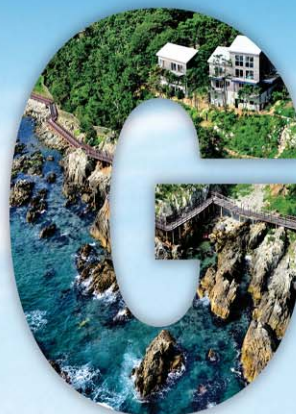
영일대



호미곶 상생의손



이가리돛전망대



해파랑길

poohang
포항시

5년간 250조 투입... 산업 자금줄, 생산 분야로 공급

10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부가 금융권의 자금을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기업 투자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향후 5년간 2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대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해 산업 전반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을 크게 4개 축으로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00조원, 지역금융 확대에 75조원, 산업균형 유도에 50조원,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25조원을 각각 배정했다.

25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연계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특별자금' 신설

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에 100조 5년간 '혁신성장 프로그램' 가동

수도권-지방 연결 다극 성장축 조성 권역별 정책금융 플랫폼 구축 나서

◆ 국민성장펀드 25조·첨단산업 100조

먼저 산은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5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 산은 내부에 국민성장펀드 부문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국민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메가 프로젝트와 정책펀드 조성에 공동 참여하고, 산은이 주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가 리스크를 선부담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금의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산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첨단·미래전략산업 분야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문화·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혁신성장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00조원 가운데 90조원은 AI 대전환 지원자금과 미래전략산업 지원자금 등 특별상품에 배정된다. 나머지 10조원은 스케일업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Ⅱ 등 신규 펀드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도 AI 산업 전반으로 넓힌다. AI 기술 보유기업 육성과 AI 데이터센터(AIDC) 확충, AI 팩토리 전환(AX)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R&D)부터 응용서비스 개발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 지역금융에 75조...정책금융 플랫폼 구축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에도 향후 5년간 75조원을 공급한다. 수도권 중심의 단일 성장축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다극 성장축을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정책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 지점의 대출 기능에 본점이 담당해온 벤처투자(VC)와 펀드 조성 등의 기능을 더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완결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충남 천안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정책금융 플랫폼(가칭 NextHub in 충청)'이 첫 모델이다. 중부권 정책금융 플랫폼은 지역 정책금융 허브와 창업·벤처 지원 거점 역

'KDB 넥스트 코리아' 프로그램 내용

2030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생산적금융 250조원 공급

국민성장 프로그램	혁신성장 프로그램	지역균형 프로그램	산업균형 프로그램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강화 - 첨단전략산업기금 특별 자금 10조원 신설 - 대형 프로젝트·정책펀드 지원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90조: AI·미래전략 산업 특별상품 10조: 스케일업등신규펀드 - AI데이터센터·AI팩토리 전환 지원	- 국가의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산업 특별자금 신설 - 권역별 정책금융 플랫폼 구축	-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 사업구조 고도화 지원 -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25조원	100조원	75조원	50조원

자료/한국산업은행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뉴시스

할을 맡는다. 산은은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신축 기본안을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향후 이를 모델로 다른 권역에도 정책금융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은 영업망과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지역 유망산업의 금융 수요를 발굴하고, '5극·3특' 지역별 육성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혁신산업지원 특별자금' 등을 신설하고 연간 15조원씩 5년간 총

75조원 규모의 우대 특별상품을 운용한다.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축진을 위해 지역혁신산업지원 특별자금 신설 등 15조원 규모의 우대 특별상품을 운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KDB산업은행 전경. /산업은행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행복이란 건
누구에게나
닿아야 하잖아요?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로 온 국민의 내일을 밝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국민 누구나 행복에 가까이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국민의 오늘이 행복하게

KB마음가게 요식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맞춤형 홍보
KB희망금융센터 신용상담·채무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청년들의 도전이 행복하게

KB굿잡 취업 박람회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KB인재양성 전국 청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이들의 내일이 행복하게

KB작은도서관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 건립
KB온종일 돌봄 전국 아동 방과후·야간 돌봄 제공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KB금융그룹의 포용금융 프로젝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92호(2026.02.27.) 유효기간 2026.02.27.~2027.02.26.까지

회사 체납에 노후연금 못 받아… 13만명 수급 문턱서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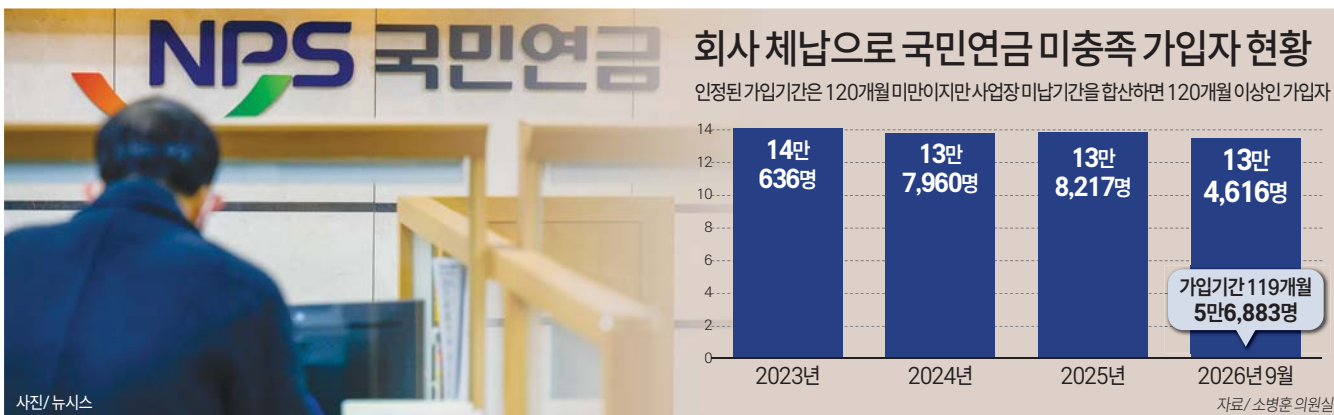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제기
회사 보험료 미납, 가입기간 미인정
체납 피해 이력 가입자 150만명 달해
근로자가 책임… 실질적 구제책 절실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작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을 자격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인정된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에 못 미치지만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가 13만4616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제 일한 기간이라도 가입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료를 보면, 인정된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가입자가 5만6883명에



달했다. 회사의 미납 보험료가 납부돼 단 한 달만 더 인정되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 미납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 가운데 60세 이상도 2만982명이나 됐다.

심지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에도 회사 미납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연도별 합계 2823명으로 확인됐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남아 있는 가입자는 2026년 9월 기준 150만342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7개월의 미

납기간이 남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내지 않은 보험료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직접 돈을 내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함께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직접 납부하더라도 해당 체납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체납기간 전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급에서 이미 보험료가 공제된 근로자라면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몫을 내고, 다시 회사 몫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했다. 공단은 소병훈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사업주의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은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공단이 제출한 제도개선 검토자료의 주요 대책 역시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현행 체납 1년 이상·2000만원 이상에서 체납 1년 이상·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체납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회사의 체납으로 가입기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근로자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구조를 그대로 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특히 연금 수급을 앞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병무청, 병역특례 점진적 폐지 공감… 시점은 ‘안갯속’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감

예술요원 기준 높이고 체육요원 개편
여성 징병·보충역 제도 개편도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의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개편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개편 일정과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아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발언과 '전역모' 착용 사진 등을 언급하며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이행 사례를 들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향을 묻자, 홍 청장은 "BTS 멤버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개편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홍소영(앞줄 가운데) 병무청장이 지난 9월4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행사에서 참석 병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 사진

국방부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했다. 다만 폐지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기본 계획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병무청은 예술요원의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 기준을 '2위 이상'에서 '1위'로 높이고, 국내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청장은 체육요원 제도에 대해 "오는 11월 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설명했다. 다만 "(체육요원)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며 "제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됐는데도 병무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2008년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으며 "20년 가까이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병역특례 편입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점을 들어 "(병무청장이) 시행령을 조정하면 되는 것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양성 징병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3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청장은 여성도 징병될 경우 필요한 전투 역량을 갖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동의했다.

천 의원은 현역 판정 대상 확대에 따른 군 전투력과 병력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8월 기준 현역 처분율이 86.7%, 보충역 처분율이 7.5%라는 점을 들며 과거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았을 인원이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초급간부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숫자는 충족된다고 해도 전투력에 있어서 바람직하냐"며 보충역 폐지가 군의 병력 관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보충역 제도 폐지 시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보충역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군에서 전투와 비전투 분야로 나눠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방미통위,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추진

안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과제 제시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목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이다.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처벌은 최근 사업자 의무 조항을 강화한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1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사업자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를 부과 받는다.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자 또한 제재 대상이 된다.

통신시장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해 불공정행위를 강화한다. 최

근 방미통위는 통신 3사의 IPTV 가입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900만여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통신·디지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5.2%로 2주째 하락
민주당도 7%p 급락, 국힘에 역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같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5.5%, 국민의힘은 41.3%로 집계되면서 두 정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 대통령 과민주당이 정책·민생 이슈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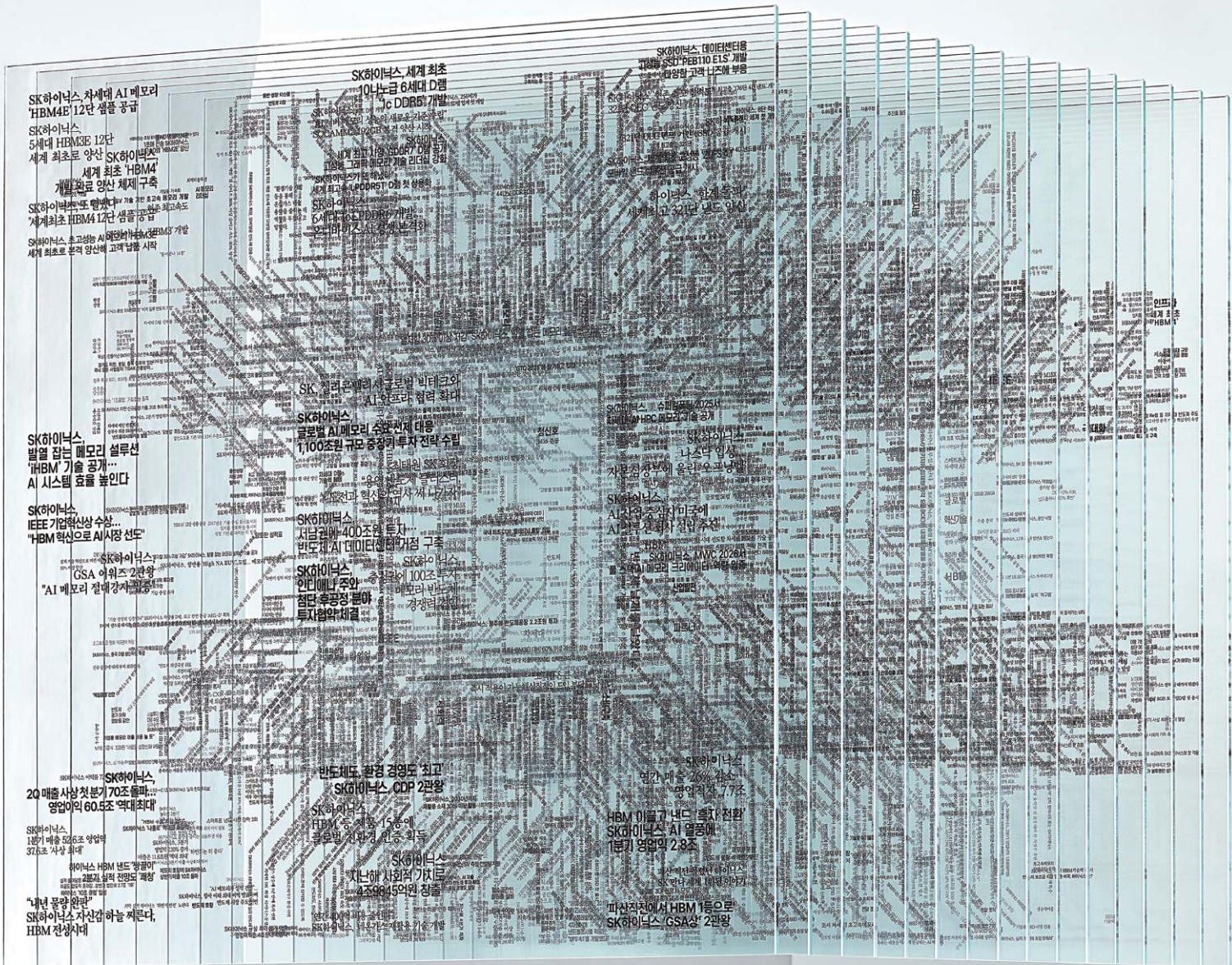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1.4%로 전주보다 1.6%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지지율은 전남광주·전북, 30대, 20대 등에서 올랐다. 반면 나머지 지역과 여성, 40~70대에서 하락했고,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또 지난 7~8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35.5%, 국민의힘은 41.3%로 집계됐다. 그 뒤로는 조국혁신당(6.3%), 개혁신당(2.8%), 진보당(1.2%)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p 오르며 지지율이 역전됐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오차범위(±3.1%p) 이내다.

이 같이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하락세를 멈출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민생·안전 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세상이 무너질 듯한 시간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시간도
흘러가는 법

비난을 받는 일상도
칭찬을 받는 일상도
흘러가는 법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나날도
누구나 올려다보는 나날도
흘러가는 법

노력이 빛을 바라는 순간도
행운이 빛을 발하는 순간도
흘러가는 법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떤 자세

“겸손하게 충실하게”

SK hynix



이 광고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U·美 이어 日 ‘속도전’… 韓, 제도 도입 투자자 이탈 막아야”

가상자산 제도화 현주소

③ 해외 선행 사례 <끝>

한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의 후발주자가 된 만큼, 주요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늦어지는 ‘가상자산 제도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워크(KBW)’에서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구조가 갑갑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쟁점이 아닌데도, 국내에서는 쓸데없는 쟁점 때문에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업종별 세부 분류를 마련해 규제 명확성도 확보하는 법안이다. 결제기술 발달로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지난해 입법 목표로 제시했지만 다수의 쟁점이 부각되며 늦어지고 있다. 논의 초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규제주체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가운데 어느 곳에 둘 지가 쟁점이었고, 이후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 여부가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은행 컨소시엄’ 또한 논의 중이다.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본부 이사는 지난 1일 KBW에서 개최된 업계 토론회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사업 확대 의지가 있더라도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사업이나 혁신을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국 입법사례는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암호자산시장법(MiCA·미카)’의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연동토큰(ART), 전자화폐토큰(EMT), 일반암호자산으로 분류해 차등 규제하며, 가상자산 발행 시에는 가상자산의 구조와 위험성을 안내하는 백서를 공시하고 규제 당국의 사전 규제를 받도록 정했다.

미국은 ‘가상자산 3법(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반CBDC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00%의 준비금 요건을 제시하며,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발행 전자화폐(CBDC) 발행을 금지해 민간 시장을 활성화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지난달 30일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 2026(KBW 2026)’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KBW에는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연사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두나무

작년 입법 목표 ‘디지털자산법’ 쓸데없는 쟁점 때문에 늦어져 EU-미카, 미국-가상자산3법 규제 지속 日도 관련법 마련 중 타국 입법 참조, 韓 법안 만들고 거래소 실적·투자환경 개선해야

하는 ‘반CBDC법’도 통과됐다.

가상자산을 ‘증권성 자산’과 ‘상품성 자산’으로 분류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클래리티법’도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금지 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을 남겼다.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법안 불발 시에 대비한 대체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지속했던 일본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앞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간주해 자금결제법 중심으로 규제했으나, 지난 7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재분류했다. 주식·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공시의무도 확대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 국내 환경에 맞는 법안 필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참조해 국제표준과 국내 금융환경에 맞춰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 산업도 다양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입법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매출이 악화하고 있고, 가상자산 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기업들은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비롯해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완화가 논의돼야 한다”라면서 “해외에서는 혁신이 한창인데, 국내의 규제만 제자리걸음을 하면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로 계속 이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리서치 전문기업 타이거리서치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가상자산 투자 수요와 대중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지만, 주요국에 비해 가상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명확한 정책으로 시장을 포용하고 있고, 정책 차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도 권역별로 편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과도기에 있지만,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 또한 산재해 있다”면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지분율 논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지형도를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해킹 막아라” 2금융권, 예산 늘려 보안전문 업체 물색

KB·스마트저축, 보안사업 입찰 사이버 공격 대응·파일 전송 제한 실험중앙회, 14억 투입 보안 강화

2금융권이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보안사업 발주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다. 3년 혹은 5년 이내 금융권 정보보호 사업 수행 실적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 물색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최근 ‘KB저축은행 정보유출 방지 통합 보안 고도화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보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구축한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AI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 금융권 관련 이미지.

/Chat GPT

기술이 악용된 점을 고려,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신 기술의 사이버 위협을 분석해 보안 환경을 개선하고, 지능형 위협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경계형, 단말, 지능형 위협 보안 등 전방면의 보안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저축은행도 ‘스마트저축은행 원격 보안 접속 솔루션 도입’ 사업 입찰에 착수했다. 원격 접속자가 내부 자료를 캡처하거나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격 접속 시 2단계 인증과 접속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화면 캡처 방지 및 파일 송수신 통제 기능을 구축한다. 아울러 원격 작업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든 작업 내역을 녹화하는 등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눈에 띄는 점은 입찰 참가 자격에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저축은행 역시 최근 3년 이내 금융회사에서 원격 보안 접속 솔루션을 5건 이상 도입한 실적을 요구했다. KB저축은행은 최근 5년 이내 국내 금융권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실험중앙회가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4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약 5개월이다.

실험중앙회도 최근 3년 이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억원 이상의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또는 유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권 보안 사업을 수행한 전문업체와 손잡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2금융권이 보안 사업 발주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인공지능(AI) 활용 해킹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티, 모우다 등 2금융권 업체에서 외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종 금융사기 ‘꼼짝마!’… 우리은행 ‘차세대 예방체계’ 구축

경찰출신 전문인력 활용 전담반 설치

우리은행이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출신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중심으로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통신정보를 결합해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속도도 개선한다.

우리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금융사기예방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금융사기 수법 및 피해예방 성과를

공개했다. 우리은행은 경찰 출신 전문인력을 활용한 금융사기 전담부서를 은행권 최초로 설치해 운영 중이며, 금융사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금융사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융사기 예방은 고객의 자산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라며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징후를 한 발 앞서 포착해 고객의 자금이 사기범에게 넘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도화·분업화하는 금융사기

우리은행은 금융사기의 핵심 원인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기회’와 ‘추적·검거가 어려운 범죄 구조’를 지목했다. 기술 발달과 분업화로 금융사기 검거를 위해 국가 간 사법공조 및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유익해야 할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을 제시했다.

‘피그부처링(Pig Butchering)’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형성한 뒤, 투자 등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하기보다 소액 투자 및 수익 경험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거액을 이체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감정적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나 입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 또한 피그부처링의 또다른 형태다.

‘리커버리 스캠(Recovery Scam)’은 이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접근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2차 사기다.

◆ 우리은행, 금융사기 대응 고도화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대응을 개별 직원

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은행권 최초의 금융사기 대응 전담부서인 ‘금융사기예방부’를 설치해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책임자로는 경찰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금융사기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전재홍 총괄수석을 영입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금세탁방지(AML) 부서간 통합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의심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FDS 부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639건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파악해 AML 부서에 전달했으며, 추가 분석을 통해 83건을 의심거래보고(STIR) 조치했다.

/안송진 기자

완성차업계,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제조현장 혁신 속도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성능 개선
KGM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나서
BMW 부품생산 등 현장실증 추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생산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BMW·르노·폭스바겐 등이 부품 운반과 품질검사 등으로 로봇의 작업 범위를 넓히면서 실제 생산공정 적용을 위한 기술 검증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마련한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하고 있다.

아틀라스는 자동차 부품을 조립 순서에 맞게 분류·배치하는 서열 작업과 자재 이동 등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인공지능(AI) 학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하는 모습. /보스턴다이나믹스

습에 활용해 로봇의 작업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부품 서열 작업을 맡기고 2030년부터 부

품 조립 등 복잡한 공정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KG모빌리티(KGM)도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다. 지난 3월 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조현장에 적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KGM은 자동차 검사와 부품 이송·조립 공정 등을 실증 환경으로 제공해 로봇의 작업 능력과 현장 적응력,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해의 완성차 업체들도 생산현장에서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BMW는 미국 스프링필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피규어 02’를 10개월간 시험해 용접 공정에 필요한 금속 부품 9만개 이상을 집어 정해진 위치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BMW X3 3만대 이상 생산을 지원했다.

BMW는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도 휴머노이드 ‘AEON’을 활용해 배터리 조립과 부품 생산 관련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르노그룹은 프랑스 두에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켈빈’의 타이어 운반 작업을 시험하고 있다. 2027년 말까지 프랑스와 스페인 공장에 350대를 배치한다는 목표다.

폭스바겐의 중국 합작사 FAW·폭스바겐도 지난 8일 현지 로봇업체 UBTECH

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장 물류 분야의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시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칭다오 공장에서 차량 품질검사 실증을 진행한 데 이어 부품·자재 운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 분류와 운반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업체별로 개발·훈련부터 실제 공장 실증까지 진행 단계가 다른 만큼 향후 조립 등 복잡한 공정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휴머노이드는 기존 생산설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여러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실제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려면 작업 정확도와 안전성은 물론 도입 비용 대비 생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정유업계, 4분기 고마진 기조 이어진다

전쟁 여파 등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난
정유 4사, 영업이익 큰 폭 증가 전망

러시아와 중국이 석유제품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국내 정유업계의 고마진 기조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인 전망이 나온다. 양국의 조치로 정제마진에 단기적인 하락 압력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전쟁에 따른 정제시설 가동 차질과 제한적인 수출 여력으로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난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최대 480만톤 규모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즉시 30만톤, 11월 50만톤, 이후 100만톤을 공급하고 정제 상황에 따라 300만톤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발표 직후 미국 초저유황경유(ULSD) 정제마진은 배럴당 6.45달러 하락한 96.80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제 국경철 연휴 직후 석유제품 수출을 재개하며 10월 휘발유·경유·항공유 수출 물량 약 370만톤을 승인했다. 지난 3

월 중동 전쟁 여파로 수출을 제한한 뒤 7~9월 규제를 완화했으나, 이달 초 연휴 시작 당시에는 홍콩·마카오 외 지역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의 조치만으로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러시아 원유 정제능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루 310만 배럴 규모의 설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등으로 가동 중단된 상태다. 수확철 내수 증가까지 겹쳐 연내 수출 회복이 어렵고 수출 제한 조치가 오는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공급 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10월 승인 물량 370만톤은 지난 9월 석유제품 수출 추정치인 400만톤 이상을 밑돌고, 시장 예상에도 못 미쳤다는 평가다.

석유제품 공급난에 따른 정제마진 강세는 산업·운송 부문의 수요가 견조한 경유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달 16일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기준 아시아 초저유황경유(황 함량 10ppm) 정제마진은 배럴당 87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이전인 배럴당 약 22달러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높은 정제마진에 힘입어 국내 정유 4사의 3분기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2조187억원(전년 동기 대비 252.02% ↑), 에쓰오일 1조1252억원(390.89% ↑), HD현대오일뱅크 1조1120억원(482.20% ↑), GS칼텍스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4분기에도 정제마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LS증권은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등·경유 부족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의 실제 추가 공급 규모와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및 수출 물량 제한은 국내 정유업계의 수익성 변수로 꼽힌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과 학과 교수는 “전쟁이 끝나고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수급 불안심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정유업계가 단기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이를 석유산업의 구조적 성장세 회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내일 ‘반도체대전’ 열린다… 삼성·SK 등 차세대 제품 소개

‘실리콘 지능의 시대로’ 주제 개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대전에서 통합 반도체 솔루션과 차세대 메모리를 앞세워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300개 기업이 88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지난해보다 참가기업은 70여 개사, 부스는 230여 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실리콘 지능의 시대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메모리부터 스마트폰·자동차·로봇에 적용하는 반도체까지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여러 반도체를 결합해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역량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모바일 이미지센서·프로세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전시한다. 반도체 위탁생산인 파운드리 솔루션과 차세대 3D 메모리 구조도 소개한다.

SK하이닉스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AI 여정’을 주제로 차세대 HBM4E와 고대역폭플래시(HBF) 기술을 선보인다. 서버·PC·모바일용 D램과 낸드플래시,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주력 제품 실물도 전시한다.

대기업의 신제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설계·소재·장비 기술도 전시된다. 에이직랜드와 칩스앤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설계 기술을 소개하며 동진세미켄과 미코는 소재·부품 분야에 참가한다.

전시와 연계한 전문 행사에서는 첨단 패키징과 국제 표준, 로보틱스 반도체를 다룬다. 14일 ‘반도체 첨단패키징 R&D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15일 ‘JEDEC 글로벌 표준 포럼’, 16일 ‘휴머노이드를 움직이는 반도체’ 세미나가 차례로 열린다.

개막 기초강연에서는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이 AI 시대의 메모리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효성화학, 포케톤 기반 유럽 시장 공략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獨 파쿠마 참가… 기술 세미나 개최

효성화학이 전기차·로봇 부품용 소재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고기능 플라스틱 소재 포케톤(POKETONE)의 적용 분야를 넓혀 소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효성화학은 12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가공 전시회 파쿠마(Fakuma) 2026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파쿠마는 글로벌 소재 기업과 유럽 주요 제조업체들이 참가하는 플라스틱 가공 산업 전시회다.

효성화학은 자동차·로보틱스·의료물



효성화학의 파쿠마 2026 부스. /효성화학

주제로 포케톤을 적용한 자동차 커넥터와 기어·구동 부품, 의료 부품 등을 선보인다. 14일에는 ‘세계에서 검증된 소재, 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기술 세미나를 열고 포케톤의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제철, H형강 통합 브랜드 ‘H ONE’ 출범

고부가 건축용 철강재 시장 공략

현대제철이 압연·용접 H형강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선보이며 고부가 건축용 철강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대형 건축물의 설계와 규격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제품 선택 폭과 공급 역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원에서 주요 고객사와 구조설계사, 학·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형강 통합 브랜드 ‘H ONE’ 출시 행사를 개최했

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압연 H형강(RH)과 용접 H형강(BH)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다. 기존 RH 중심의 사업을 BH까지 확대하면서 구조 성능과 용접 품질을 충족하는 핵심 BH 규격 130종을 선정했다.

‘H ONE’은 건축 프로젝트별 구조와 하중, 규격, 물량, 납기 등을 고려해 적합한 RH·BH 제품 조합을 제안한다. 구조 성능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VE)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한화오션, 핵잠수함 사업 전담 조직 신설

25일까지 5개 분야 전문가 모집

한화오션이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비해 원자력 분야 전문 인력과 사업 수행 기반 확보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원자력 추진 함정 사업을 전담할 ‘정보고·개발단’을 신설하고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관련 5개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를 모집한다.

한화오션은 장보고 I·II·III 잠수함 건조 사업에 모두 참여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신설 조직은 정부와 해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업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 수주와 수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오랜 가치 지키며 끊임없이 새롭게”… 50년 K-소파의 진화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남 찬 우 다우닝 대표

창업주에 이어 2세 경영 본격화
伊 현지법인서 가죽 선별·가공 관리
국내 장인 기술로 제품 완성도 높여

디지털 마케팅 강화해 젊은층 공략
프리미엄 컬렉션·리폼 서비스 확대
품질·신뢰 바탕으로 지속 성장 추진

“오래된 브랜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가치 위에서 계속 새로 위치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다.”

1980년 당시 미도산업으로 출발해 50년 가까이 소파 전문기업으로서 ‘K-소파’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다우닝(Dauning). 창업주인 부친 남찬만 대표에 이어 회사를 이끌고 있는 남찬우 대표(사진)의 포부다.

다우닝은 국내 소파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이탈리아 현지에서 2010년부터 가죽 법인지사 ‘다오르(DAOR)’를 설립해 고품질의 원피 선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남 대표는 다오르에서 가죽 사업을 담당하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오는 등 일찌감치 2세 수업을 시작했다. 다우닝 경영에는 2023년부터 본격 뛰어들었다.



남 대표는 “소파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가죽이다. 좋은 소파를 만들기위해선 완성된 가죽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다오르를 이탈리아에 설립했다”면서 “다오르는 단순히 가죽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다우닝 소파의 시작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우닝 소파는 소재 선정→가죽 가공→

제품 개발→국내제조→품질검사→배송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차례로 거친다.

다오르는 소파의 시작점인 최적의 가죽을 선별하고 가공과 품질을 관리한다. 완성된 가죽은 국내로 들여와 디자인과 제품 개발, 그리고 재단, 봉제, 마감 등 개별 공정을 거쳐 하나의 소파를 완성한다. 이탈리아산 가죽이 한국에 있는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 K-소파로 탄생하는 것이다.

현재 다우닝그룹 전체 매출 가운데 다우닝과 다오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7대3 정도다.

그렇다고 다우닝이 가죽 소파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에는 패브릭 소파 브랜드 ‘밀로티(MILOTTIZ)’를 론칭하며 더욱 실용적이고 다양한 컬러·디자인의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물론 제조 철학과 품질 기준은 모두 같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 대표는 회사 경영에 본격 뛰어들면 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더욱 집중했다. 제대로 만든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다.

그는 “기존의 다우닝은 적극적인 마케팅보다 좋은 제품을 기반으로 한 고객의 입소문과 신뢰를 통해 성장해온 브랜드였다. 이런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이젠 다우닝이 가진 가치를 더 많은 세대에게 적극 알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온라인 판매와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 접점을 넓혔고 기존보다 젊은 고객층에게 다우닝을 알리기 위해 콘텐츠, 다양한 협업, 고객 참여형 클래스 등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우닝은 가구제작 연구소 ‘드웰(D.well)’을 통해 프리미엄 소파 컬렉션도 선보이고 있다. 단순히 소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남 대표는 “필로우톡’이라는 제품이 있

는데, 모던하면서도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갖춰 드웰이 추구하는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파”라고 설명했다.

올해엔 프리미엄 소파 리폼 서비스 ‘Re.born(리본)’을 새로 선보이기도 했다.

남 대표는 “오래 사용한 소파를 무조건 폐기하는 대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고객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소파에 담긴 추억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내놴다”면서 “이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가죽도 최대한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레더굿즈로 제작하거나 가죽공예 클래스의 소재로 쓰기도 한다. 앞으로도 소재 선택부터 제조, 사용 이후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우닝이 만드는 소파는 현재 롯데·현대·갤러리아·신세계·AK 등 전국의 62개 백화점 매장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직영점인 ‘더 다우닝 리운지’는 판교 본사 외에 전국 10여 곳에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단 고객, 임직원, 협력사가 다우닝이라는 회사를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 회사가 지켜나갈 것인 경영 방향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최승재 “규제 개혁 걸림돌은 공직사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작심 비판
보신주의·부처 칸막이 행정 지적
장기검토에 묶인 과제 일괄 점검

‘중소기업 현장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규제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으로 ‘공직 사회’를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깜깜이 지침을 들이밀던 부처들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권의하면 ‘장기검토’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기 일쑤”라며 “이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과 보신주의, 부처간 칸막이, 가치



충돌을 조정할 의지의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고 일침을 놓으면서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서 과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청 벤더(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마른다. 기업을 파트나가 아닌 ‘업자’로 취업하는 시선이 살아있는 한 규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옴부즈만은 소위 ‘캐비닛 과제’로도 불리는 각 부처별 ‘장기검토 회신과제’들에 대해 일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각 부처의 캐비닛 과제가 광장히 많다. ‘장기검토’가 그냥 무조건 장기검토나, 진짜로 어려워 안해주는 것이냐 등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는 그냥 의미없이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것들도 있어 지금 조사하고 있다”면서 “형식적인 캐비닛 과제부터 다시 꺼내어 부처를 집요하게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한 최 옴부즈만은 2024년 8월부터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업무처리 등을 돕는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이다. /김승호 기자

‘모두의 창업’ 3라운드 진출 200명 선발

중기부, 15일까지 17개 시도 오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역별 오디션을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17개 시도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개최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별 오디션에선 1차 공모 신청자 6만2944명 중 1라운드를 통과하고 2라운드에 진출했던 일반·기술트랙 도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다음 3라운드(지역별 오디션)에 출전할 200명을 선발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2라운드 진출자를 대상으로 기술 멘토링과 초기 사업화 자금(최대 1000만원), 규제 스크리닝,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등을 지원해 왔다. 이

와 함께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과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 협약보증 등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에 힘입어 2라운드 진출자 중 20개 기업이 약 30억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458건의 특허 출원과 192건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프로젝트 지원 초기 단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역별 오디션은 이전 라운드까지 진행한 멘토 중심의 평가에서 한 단계 나아가 투자자와 기술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도전자들의 공개 설명회(IR) 피칭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 아이템 우수성,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김승호 기자

가온전선, 美 원전 특수케이블 시장 노린다

AIDC 확산에 원전 건설 수요 주목

가온전선이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 건설이 주목받는 가운데 기존 송전망 중심의 사업 영역을 원전용 케이블로 넓혀 신규 수요를 공략한다.

가온전선은 미국 생산법인 LSCUS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타보로 공장에 원전용 케이블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미국은 장기간 신규 원전 건설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원전용 케이블을 비롯한 현지 기자재 공급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전에는 설계에 따라 5만 개 이상의 전기 케이블 회로가 사용돼 대규모 전력·제어·계측 케이블 수요가 발생한다. 원전용 케이블은 설치 위치와 용도에 따라 규격과 성능 요건이 달라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제품으로 꼽힌다.

LSCUS는 가온전선의 특수 케이블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인증을 추진하고, 국내 원전 기업과 협력해 미국 현지 공급망 진입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형 원전과 SMR 시장 확대에 따라 원전용 케이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홈쇼핑 신규·휴면 고객해택 확대

홈쇼핑이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위해 특별한 웰컴해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12일 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홈쇼핑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쇼핑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객들이 더욱 알뜰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즉시 적립금과 추가 구매 혜택을 함께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오늘부터 16일까지, 2차는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하며 본인인증을 완료한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승호 기자

교원투어, B2B 여행 브랜드 ‘RISE’ 론칭

기업 맞춤형 포상여행·해외연수 확대

교원투어가 B2B 전용 여행 브랜드 ‘교원투어 RISE’를 론칭하고 관련 여행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인센티브 투어를 비롯해 해외연수와 산업 탐방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상품과 운영 서비스를 앞세워 기업 고객을 확대하고 B2B 여행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12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회사는 전신인 교원여행이 출범한 1996년부터 구몬학습, 빨간펜, 교원 웰스(Wells) 등 교원그룹 주요 영업조직의 인센티브 투어를 기획해 왔다. 특히 영업조직의 특성과 기업별 여행 목적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B

2B 여행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교원투어 RISE는 기업의 여행 목적에 맞춰 상품을 세분화·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수 임직원 포상 ▲산업 벤치마킹 ▲프리미엄 포상 ▲문화탐방·해외연수 ▲테마 휴양 ▲국내 맞춤 여행 등으로 구성했다. 교원투어 RISE는 기업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검증된 전문 가이드를 배치한다.

교원그룹 계열사와 연계한 고객사 혜택도 마련했다. 교원투어 RISE를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은 기업 인증을 거쳐 빨간펜, 구몬학습, 교원 웰스, 교원라이프 등 교육·생활가전·장례 서비스를 특별가로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접수기간 연장 공고

보다 많은 우수 SW·AI 제품·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및 혁신 인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접수마감 연장

~~2026. 9. 30.(수) 18:00~~



2026. 10. 16.(금) 18:00



시상

2026년 11월 말 예정

2026년 9월 29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I)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SW·AI 제품·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 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의미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용
부총리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 접수마감 : **2026. 10.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awards@kswict.or.kr
-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시상 : **2026년 11월 말 예정**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세부 심사기준 및 관련 서식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다운로드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심사
(요건심사)

2차 심사
(전문심사)

최종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시상



문의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 Tel. 02-858-8510

※ 본 공고는 2026년 8월 28일 최초 공고의 접수기간 연장 사항을 반영한 안내입니다.

엔비디아 손잡은 네이버, 100억달러 AI 인프라 ‘승부수’

네이버에 10억달러 유상증자 대금
브룩필드의 90억달러 투자와 연계
핵심 고객사 계약, 연내 공개 가능성
상반기 55MW 규모 데이터센터 완공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대규모 투자 협력을 발판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광고·커머스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총 100억달러(약 133조5300억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구상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달 말 엔비디아의 투자금 납입을 시작으로 핵심 고객사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될 경우 네이버의 사업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IT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30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1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계기로 네오클라우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네오클라우드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기업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글로벌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AI가 만든 이미지.

별 기업들의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와 GPU 확보가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엔비디아 10억달러 투자…네오클라우드 사업 첫 관문

네이버의 AI 인프라 전략은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는 30일 네이버에 10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이는 브룩

필드의 90억달러 규모 투자와 연계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의 선결 조건으로, 전체 투자 구상은 100억달러에 달한다.

증권가는 엔비디아의 투자금 납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달 중 네오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고객사 확보도 주요 변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장기 공급 계약이 중요한 만큼 실제 고객사와의 계약 여

부가 사업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고객사와의 구체적인 공급 계약이 연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계약이 가시화되면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기존 클라우드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3분기 영업이익 11.8% 감소 전망…수익성 부담 확대

네이버가 AI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기존 플랫폼 사업의 성장 둔화도 자리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3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1.8% 감소한 5030억원으로 추정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5482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주요 수익원인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광고 매출은 1조4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커머스 매출은 4998억원으로 1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인프라 비용은 2457억원으로 12.4% 늘고, 마케팅 비용은 6377억원으로 2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확대를 위한 'Npay Connect' 단말기 보급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내년 AI 데이터센터 매출 본격화 기대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네오클라우드 사업이 2027년부터 실적에 기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27년 상반기 55메가와트(M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완공되고 같은 해 3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본 부담과 GPU 확보, 데이터센터 가동률, 핵심 고객사 계약 등이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꼽혔다.

결국 엔비디아의 투자금 납입 이후 브룩필드의 자금 조달과 고객사 계약이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는지가 네이버 AI 인프라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KT, ‘모두의 AI’ 12월 출시 앞두고 협력 확대

KT컨소시엄, AI 생태계 확장 논의
검색·금융 등 생활밀착 AI 서비스

KT는 1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빌딩에서 ‘모두의 AI 콘서트서밋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 AI’를 통해 구성한 KT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함께 ‘연결을 넘어 실행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운영 KT 대표도 참석해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현황과 정식 출시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KT컨소시엄은 다양한 국산 AI 모델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이용자에게 끊임 없는 AI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각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연계해 검색, 교육, 금융, 콘텐츠, 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된 AI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먼저, 서비스 초기에는 다양한 질문의도를 정교하게 파악해 최적을 답변을 제



박운영 KT 대표이사(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모두의 AI’ KT컨소시엄 참여 기업 대표와 경영진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KT

공하고 일상 생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주력한다. 사용자는 날씨와 생활 정보, 주식, 인물, 콘텐츠 관련 정보를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다.

또한 12월 정식 서비스 출시 이후 발전 방향과 서비스 고도화 전략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참여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연계를 확대해 이용자가 더욱 풍부한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

다. 컨소시엄은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서비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협력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하나로 연결된 AI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KT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참여 기업 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SKT, 성수 거점으로 문화유산 알린다

민관 협력 ‘K-보물길’ 참여

SK텔레콤이 T 팩토리 성수를 거점으로 문화관광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SK텔레콤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민관협력 문화관광 프로젝트 ‘K-보물길’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유물을 소재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이고, 이를 지역박물관 방문과 여행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2027~2029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마련했다.

핵심 공간은 SK텔레콤이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하는 ‘T 팩토리 성수’다. 자사의 공간 기획 역량을 통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공동 전시를 열고, 문화유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청년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성수의 특성을 살려 박물관과 문화유물을 여행과 연결한 전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문화유물과 박물관 상품을 의미하는 ‘뫼츠’를 선보이고, 방문객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낼 예정이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참여기관 간 협업과 지역관광 연계, 사업 기획·운영 및 홍보를 지원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문 감수를 통한 콘텐츠 협력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뫼츠 협업 상품의 공동 기획·제작을 맡아 프로젝트에 전문성을 더한다.

오는 11월 첫 협업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T 팩토리 성수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동선을 마련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지도, AI 글래스 길안내 지원

구글·삼성·메타와 맞손

네이버가 구글·삼성전자·메타와 손잡고 네이버지도의 길안내 서비스를 인공지능(AI) 글래스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국내 지도 서비스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AI 글래스 기반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메타의 ‘레이벤 메타’와 ‘오클리 메타’에서 먼저 지원되며, 연내 출시 예정인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이동 중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도 AI 글래스를 통해 목적지까지 음성으

로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방향은 물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등 경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네이버지도는 지난 6월 선보인 ‘실시간 도로 길안내’를 AI 글래스로 확장했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에서 우선 지원하고 iOS에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AI 글래스 전용 음성 호출 기능도 도입한다. 이용자가 ‘도착 예정 시간 알려줘’ 등 음성으로 질문하면 네이버지도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서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니’를 통해 네이버지도를 음성으로 실행하고 길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웹툰, 뉴욕 코믹콘서 존재감 뽐내

4일간 부스 2곳에 5만명 방문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코믹콘 2026’에서 북미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 센터에서 열린 뉴욕 코믹콘에 참가해 단독 부스 2곳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욕 코믹콘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대중문화

행사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참가했으며, 올해는 부스 규모를 확대해 현지 이용자와 만났다.

약 100평 규모의 웹툰 전용 부스에서는 인기 웹툰 ‘포그랜드’의 세계관을 재현하고 6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웹툰 감상 이벤트와 코스튬 플레이, 한정판 상품 판매, 작가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행사 기간 4일간 약 5만명이 방문했다.

별도 부스에서는 오는 11월 16일 출시 예정인 ‘마블 코믹스’ 앱을 공개했다. 웹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코믹콘 2026’에서 북미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네이버웹툰

툰 엔터테인먼트가 개발·운영하는 이 앱은 마블과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의 작품 3만5000편 이상을 디지털 만화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삼성전스, 최대 실적에도 주가 뒷걸음… 외국인 매도에 발목

반도체주 피로감·HBM 경쟁력 우려
소재·부품·장비주로 순환매 확산
이달 외인 2조 매도… 수급 회복 관전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 사도 90점 이상은 한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선 이 말이 ‘정석’으로 통했다.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 뒤부터다. 격정은 현실이 됐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107조4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한 후 두 반도체 주가는 4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덕분에 12일 코스피는 6384.24(-3.65%)까지 밀려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가의 반도체 연구원은 “시험 점수로 따지면 국내 메모리 ‘투톱’이 매 분기 100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버리다 보니, 다음 분기에 만점을 받더라도 감흥이 덜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삼성전스’가 이끌고 있는 코스피가 ‘6천표’ (코스피 6000)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것은 아닐까.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AI 혁명의 훈풍이 한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불어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국인 수급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3.65% 내린 6384.24에, 코스닥지수는 4.83% 내린 849.19으로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정규장 마감시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 증가보다 7.7원 내린 1335.1원을 나타냈다. /뉴시스

◆반도체 주춤, 소부장은 날개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100위로 구성된 코스피 대형주 지수 상승률은 -7.0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1~300위인 코스피 중형주 지수는 -1.97%, 301위 이하로 구성된 소형주 지수는 -0.90%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대형주 지수 부진은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정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간 삼성전자는 3.47%, SK하이닉스는 11.42% 하락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온 ‘빅테크·반도체’ 중심의 상승 피로감과 함께 반도체 업황 전망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M)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의 여파로 분석된다.

더 큰 기대감과 감동을 찾아 헤매는 시장의 눈길은 자연스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섹터로 향한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심텍, 원익IPS, 이오테크닉스 등이 모두 소부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을 대형주 중심 장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중소형주 순환매가 확산되는 국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대대적 증설로 인해 2027년 장비 시장 전망치 역시 지속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모두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한 구간”

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금리 등 매크로 환경과 실적을 확인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는 5.3%를 넘나들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스, 코스피 반등 이끌까

‘코스피 대장주’의 체면을 구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할까.

JP모건은 아시아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과 대만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을 유지했다. 한국과 대만 기술 기업의 실적은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소득, 정부 재정수입, 은행 유동성 등에 과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AI 하드웨어 업종의 공급 부족이 적어도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하드웨어 기업들이 물량 증가와 가격 결정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생태계의 순이익은 2028년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세계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임에도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4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극단적 저평가로, 밸류에이션 할인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HBM4는 D램(DRAM)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 수준에서 연간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1분기부터 평균 판매가격(ASP) 상승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수급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0월 들어 코스피에서 2조여치 순매도했다. 올해 누적액도 199조원으로 늘어났다. 2023년 11조원대 순매수, 지난해 4조원대 순매도와 비교하면 기록적인 매도세다. 순매도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이달 들어 두 종목에서 각각 1조7730억원, 11조5844억원어치 팔렸다. 5월부터 여섯달째 누적 순매도액은 각각 50조2718억원, 70조4815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6.35%까지 줄었다. SK하이닉스 역시 50%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실적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미국은 AI서비스와 인프라 전반에 걸쳐 주도주가 존재한다”며 “(두 국가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수혜라는 공통점에도 기업별 수익구조와 밸류체인 내 위치는 상이하”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글로벌 자산배분 변화와 한국 반도체의 상대 밸류에이션,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 등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방향 맞혀도 손실… ‘음의 복리’의 역습

개미 레버리지 투자 현황 보고서

삼성 15% 내릴 때 인버스 2배 -54%
레버리지도 주가 하락폭 3배 안팎 손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본 투자자 A씨가 삼성전자 단일종목 인버스 2배 상장지수펀드(ETF)에 1000만원을 넣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달 8일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14.7% 하락했다. 하지만 이 상품의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A씨의 1000만원은 458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방향을 맞췄는데 왜 잃었을까. 답은 ‘음(-)의 복리’에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 NAV는 상장 첫날 증가 대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일인 이달 8일까지 54.2% 줄었다. 같은 기간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선물지수는 16.1% 하락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30% 넘는 수익이 있어야 한다. ‘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도 선물지수가 27.0% 내리는 동안 NAV가 59.5% 감소했다.

상승에 베풀한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더 컸다.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현물형 5종의 NAV는 46.6~48.4%, SK하이닉스 현물형 5종은 65.0~66.2% 줄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30만7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14.7%, SK하이닉스는 224만3000원에서 168만1000원으로 25.1% 내렸다. 주가 하락폭의 3배 안팎에 이르는 손실이다.

음의 복리란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할수록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가치가 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두 배로 베풀하는 단일종목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 날 만에 50~60%대의 손실을 냈다. /따능 AI로 생성한 이미지

적적으로 깎이는 현상이다. 이들 상품은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매일 새로 맞추기 때문이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8월 발간한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지수가 20% 오른 뒤 20% 내리면 손실은 4%지만, 2배 레버리지 ETF의 손실은 16%로 벌어진다.

지난 1년 달은 이 효과가 극대화된 시기였다. 상장 이후 90거래일 중 주가가 하루 5% 넘게 움직인 날은 삼성전자 32일, SK하이닉스 35일이었다. 사흘에 한 번꼴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7월 28일 13.4% 빠졌다가 31일 26.8% 급등하기도 했다.

자금은 상장 초기에 몰렸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6월 말 발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출시 전후 주식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출시 후 2주간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약 8조2000억원

어치 순매수했다. 레버리지 14종의 순자산은 6월 25일 17조3847억원에서 이달 8일 5조6959억원으로 67% 줄었다. 고점 이후 약 12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순자산에는 유동성공급자(LP) 보유분과 주가 등락에 따른 평가액 변화가 함께 반영된다.

변동성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주가는 2.42% 내린 26만2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2.44% 하락했다. 호재가 나오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셀론(sell on)’이 나타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같은 날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자체는 낮아졌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던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멘텀을 개선 및 강화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삼성운용, 국민연금 인근 전주사무소 개소

삼성 운용 계열사 3곳 전주 집결

삼성자산운용이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열고 국민연금과의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전주에 자산운용사들의 거점 마련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도 현지 거점을 확보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함께 입주해 전통 자산부터 대체자산까지 아우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전북 전주에서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사무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마련됐으며, 지난달 28일 사무실 조성을 마치고 이달 1일부터 현지 근무를 시작했다.

이날 열린 전주사무소 개소식에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하지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삼성 운용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조지훈 전주시장, 윤희숙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지자체 핵심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번 전주사무소에는 삼성자산운용뿐 아니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함께 입주했다. 각사의 전문성을 연결해 국민연금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자산운용이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액티브 투자와 대체투자 분야까지 협업 범위를 넓히는 구조다.

삼성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국민연

금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고객의 투자 수요와 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서울 본사의 운용·리서치·상품 조직과 연계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의 실무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을 아우르는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자산운용사들이 전주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부터 국내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 업무 거점을 둔 운용사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인프라와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거점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가점 1점이 평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운용사들의 전주 진출은 이어지는 추세다. KB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여러 운용사가 전주에 사무소를 마련하거나 개소를 추진해 왔다. 삼성자산운용의 합류로 국내 주요 운용사들의 전주 거점 확보 움직임도 이어지게 됐다.

다만 사무소 개설이 실제 운용 인력과 투자 의사결정 기능의 이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운용·리서치 등 핵심 인력이 서울에 집중된 업계 구조상 사무소 설치와 실질적인 업무 기능 이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신하은 기자

K-조선, 1.4조 투입해 AI 대전환… 제조혁신 닷 올렸다

정부·조선업계 2030년까지 투자 대형 조선소 기술 중소 협력사 확산 목표·영암 5960억 들어 공정 혁신 거제·부산 5000억 투입해 자동화 군산 3100억 들어 지역 조선업 재건

글로벌 경쟁 심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직면한 국내 조선업이 제조 공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정부와 지자체, 대형 조선소와 중소 협력사가 손잡고 오는 2030년까지 1조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상생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K-조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12일 오후 전남 목포 호텔현대바이라한에서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협력 체계를 조선 제조 공정 전반으로 확대·개편한 '조선 M.AX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조선소들은 드론 기반 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오후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정 모니터링 등 일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해왔으나, 수많은 중소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여전히 수작업 중심에 머물러 있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상당했다. 이에 양 부처는 지역 산업과 앵커기업, 협력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AX 효과가 큰 타겟 공

을 설정해 5년간 집중 지원에 나선다.

우선 목포·영암권에서는 총 596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추진된다. 앵커기업인 HD현대삼호화물 생산 공정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자율 물류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형 야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 등이 영암군 대불자유무역지역 내에 4000억 원을 투자해 'AI 조선소 등 대공장'을 구축하고 성과를 지역 조선기업과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앵커기업의 R&D에 1600억 원을 지원하고, 협력사들의 현장 설비 보급에 360억 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거제·부산권은 5000억 원을 투입해 기자재 기업 중심의 의장 공정 혁신을 추진한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거제 지역 앵커기업이 도면 설계 체계를 AI로 전환하고, 설계 및 생산 정보를 기자재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도입한다. 전국 기자재사의 약 60%가 밀집한 부산 지역에서는 배관·배전·철의장 분야의 중소 기자재사들이 자동화 로봇과 AX 장비를 적극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군산권은 과거 신조 중단으로 쇠퇴했던 지역 조선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해 총 31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단행한다. 군산 조선소를 인수한 제이오션중공업이 소

립 공정 AX 실증 설비를 위한 공장 증설과 5G 특화망 인프라 부지를 제공하며, 검증된 기술은 인근 중소 협력사로 이전된다. 정부는 소조립 공정 기술 개발과 5G 특화망 구축 등에 1100억 원을 투입해 부활의 발판을 다진다.

이날 산업부와 해수부는 2035년까지 I MO Level 4 완전자율운항선박 운항 개시와 글로벌 시장 수주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26~35)'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등 5대 전력을 이행해 2035년 약 2245억 달러로 전망되는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간 노동력에 의존해온 조선업의 M.AX는 그 어느 산업보다 쉽지 않은 도전과제"라며 "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해 중소조선·기자재사에 있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조선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겠다

"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코트라, 해외직원 안전망 곳곳에 구멍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 9건 발생
보안·후송 서비스 일부 지역 한정
외교부와 의료 지원 격차도 심각

중동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파견 직원들의 신변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소속 기관에 따라 해외 근무자의 안전과 의료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무역관 파견직원 피해 건수는 총 9건으로 최근 10년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7건이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당시 두바이에서는 직원 거주 인근에 요격 드론 파편이 낙하했고, 텔아비브 등지에서는 미사일 경보로 방공호 대피가 이어졌다. 텔아비브 쿠웨이트·안만·두바이 등 4곳에서는 직원 동반가족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고, 지난 9월에도 쿠웨이트 거주지 인근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을 지킬 제도적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코트라의 보안·후송 서비스(SOS)는 원칙적으로 136개 무역관 중 위험지역 47곳에만 적용된다. 전 지역으로의 일시 확대는 민간 수행업체의 제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특수지 직원까지 전 지역에 적용하는 데 드는 예

산은 약 1억 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오히려 감액된 금액만 반영됐다. 반면 외교부와 KOICA는 지역 구분 없이 전 재외공관 근무자와 동반가족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의료 안전망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강북삼성병원을 통해 모든 재외공관 직원과 가족에게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코트라는 관련 예산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여건이나 동남아·중남미의 맹기열 위험, 중동의 언어 장벽 속에서 직원과 가족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급한 예산 반영이 누락된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BPA, 북극항로 이용 3대 원칙 제시

‘2026 북극서를 총회’서 발표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북극항로 이용은 친환경·상호신뢰 등 국제협력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송 사장은 지난 8~10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열린 '2026 북극서를 총회'(Arctic Circle Assembly 2026)에 참석해 '책임 있는 북극 이용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 총회는 2013년부터 매년 10월 레이카비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북극 국제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각국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원주민 대표 등 70여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사장은 북극경제이사회(AEC) 주관 세션에 연사로 초청돼 '책임 있는 극지 연결을 위한 국제 항만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북극항



송상근(오른쪽)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북극서를'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BPA

로 검토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검토는 ▲환경적 책임 ▲안전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국제협력이라는 3가지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 재직 시절 북극 정책을 다루며 얻은 교훈이라며, 국제 항만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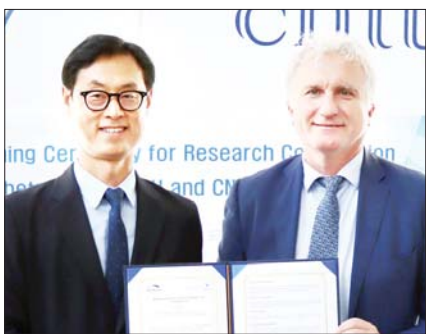
한자연, 이탈리아와 손잡고 미래차 통신기술 개발 박차

이탈리아 무선통신연구소와 업무협약
6G·차량통신 기반 커넥티드카 연구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이탈리아 무선통신국립연구소(CNIT-WiLab, 이하 WiLab)와 첨단 무선통신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기술 협력에 본격 나선다.

12일 한자연에 따르면, 진종욱 한자연 원장과 안드레아 콘티 WiLab 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WiLab에서 '첨단 무선통신 기반 미래 모빌리티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WiLab은 1995년 이탈리아 국립대학 간 설립된 비영리 대학 컨소시엄(CNIT) 소속의 무선통신 전문 연구소다. 무선통신의 이론·실증 연구와 산학협력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론·산업응용·실증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무선통신국립연구소(CNIT-WiLab)에서 체결한 MOU 서명식에서 (좌측부터 차례대로)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안드레아 콘티 무선통신국립연구소 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자연

6G, 차량통신, IoT, 대규모 무선망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핵심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 무선통신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첨단 무선통신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기술 협력 ▲커넥티드카 및 모빌리티 응용을 위한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공동연구 및 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6G, 차량통신, IoT, 대규모 무선망 등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국제공동 R&D 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한자연 원장은 "6G, 차량통신, IoT 등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의 연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라며 "무선통신 분야의 전문 연구 역량을 보유한 WiLab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과제를 적극 발굴해 한-이탈리아 간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산 콩 자립형 단지 조성에 속도

농진청, 전국 11곳 특화단지 조성 추진

농촌진흥청이 국산 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파주에는 두부공장이 들어섰다. 지역 자립형 생산·가공·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행보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사업은 '지역 자립형' 특화단지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농업인 주도로 ▲원료곡의 안정적 생산 ▲수확 후 종합 처리 ▲가공제품 개발 ▲유통 및 소비 확대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선품', '대단', '청자5호' 등 신품종 보급과 재배 전(전)과정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수확 후 선별·저장·가공 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 콩 가공 상품 및 상표 개

발을 뒷받침해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 자립형 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 11곳 가운데 충남 당진·전남 함평, 충북 괴산·경남 사천 등 4곳에서는 체계 구축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경기 파주와 경북 영주·충북 충주·충남 공주·전북 김제·전북 익산·경북 울진 등 7곳은 진행 중이다.

파주시에서는 이날 12일 '해스밀레' 두부공장이 개소했다. 그간 추진해 온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완성된 것.

이두부공장은 농촌진흥청과 파주시가 지난 2년간 사업비 20억 원(국비 50%)을 투입하고, 생산자 단체와 가공 법인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룬 공동의 성과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상경 농진청 차장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햏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햏터그룹
Haetter Group

역대최대 규모 ‘K-뷰티엑스포 코리아’ 열린다

킨텍스 15일부터 사흘간 행사
국내외 뷰티기업 679개사 참여
이민우 대표 “비즈니스 성과 집중”

국내외 뷰티기업 679개사가 참여하는 ‘2026 K-뷰티엑스포 코리아’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88개 부스가 마련되며, 60개국 220개 해외 바이어 기업을 초청해 국내 뷰티기업의 수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킨텍스는 12일 올해 18회째를 맞는 K-뷰티엑스포에 국내 기업 597개사와 해외 기업 82개사 등 15개국 679개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참가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1.3배, 전시면적은 1.4배 확대됐다. 해외 참가기업도 지난해 65개사에서 올해 82개사로 늘었다. 이번 전시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해외 바이어와 국내 뷰티기업을 연결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다.

킨텍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



2026 K-뷰티엑스포 코리아 홍보포스터

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60개국 220개 바이어 기업을 선정했다. 별도로 전시장을 방문하는 바이어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바이어 방문 규모가 1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킨텍스에 따르면 개막에 앞서 진행된 사전 상담에서는 독점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나왔다. 행사장에는 업무

협약 체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수출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망 확보를 위한 ‘MD 유통 상담회’도 진행한다. 틱톡코리아와 와디즈, 롯데홈쇼핑, 한화갤러리아 등 유통사 33개사가 참여해 국내 뷰티기업의 제품을 검토하고 입점 가능성을 논의한다. 현장 유통 담당자가 제품을 선정하는 ‘MD’s Pick’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기도 소재 소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도 마련됐다. 킨텍스는 코트라와 함께 ‘경기도 ESG 전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등 6개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열린다.

16일에는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더우인(Douyin)과 샤오홍슈(RED Note)의 입점 설명회가 진행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뷰티산업 동향과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K-뷰티 인

사이트 콘서트’도 마련된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뷰티풀(BeautyFull)’은 위스타트와 협력해 운영한다. 행사에서 조성한 기부금과 참가기업의 협찬 제품 등은 저소득 가정 여아에게 제공할 화장품·여성용품 꾸러미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전시회는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킨텍스는 앞으로도 해외 참가기업과 초청 바이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뷰티기업이 해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는 “K-뷰티엑스포의 성장은 국내 뷰티기업을 향한 글로벌 시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며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게 상담이 계약으로, 만남이 새로운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제107주년 황단대제

진안군, 화양산 황단대제 봉행

전북 진안군은 지난 9일 주천면 대불리 개화동 화양산 황단에서 제107주년 화양산 황단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화양산 황단제 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전·전주 등지의 유림과 지역 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초헌관은 전춘성 진안군수, 아헌관은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이철희 용담향교 장의가 맡아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진안(전북)=허남근 기자 nk1378@

해남 파인비치, LPGA 대회 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총상금 31억5000여 만원이 걸린 국내 유일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 대회가 열린다.

BS그룹은 LPGA 투어 정규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6’을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그룹 소유의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BMW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정규 대회다. 올해는 KLPGA 선수 15명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선수 84명이 출전해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을 다툰다. /해남(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설공단

“부강이 봐야”… 134만명 몰려

부산 북항진수공원 수로에 24일째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강이’를 보기 위해 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이 130만명을 넘어섰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항진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방문객은 총 134만8800명에 달한다.

국립수산물박물관은 부강이의 유영 행동과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봉화군

경북도지사기 마라톤대회 성료

경북도와 봉화군이 지난 9일 봉화은어송 이데마공원에서 ‘제15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경북도와 포항시·안동시 등 16개 시·군 소속 공직자 35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10km 단축마라톤 단일 종목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과 최기영 봉화군수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경기를 당부했다.

시·군 종합 부문에서는 울진군이 1위, 구미시가 2위를 차지했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구미시 송영준 선수가 37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했다. /봉화(경북)=김준환 기자 kih9@



경남 함양군 지리산 제일문(좌). 진주시 철도문화공원(우).



단풍으로 물든 경남… 여행명소 부상

경남도, 단풍 여행지 4곳 추천
오도재 일대·대원사 계곡 등 선정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이 10월이 만든 풍경을 따라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단풍 여행지 4곳을 추천했다.

먼저 함양군 오도재 일대와 지리산 조망공원에서는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지리산의 능선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지리산 제일문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진주시 도심 속 철도문화공원은 옛 진주역 철도시설과 가을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수크림이 어우러져 색다른

가을 풍경을 선사하는 힐링 명소다.

의령군 유곡면에 있는 망우당 객재 우 의병장 생가는 오래된 나무와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어우러진 가을 여행지다. 마을 입구에는 ‘의령 세간리 현고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생가 앞에는 천연기념품 제302호 수령 600년 이상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가 자태를 뽐낸다. 산청군 대원사 계곡은 지리산 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며 걷기 좋은 여행지다. 31일 대원사에서 열리는 ‘대원사 산사음악회’를 함께 즐긴다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 여행을 완성할 수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홍성군, 내포 국가산단 보완 작업 분주

예타 재신청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충남혁신도시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포신도시 미래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홍성군에 따르면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내포신도시 미래산업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최근 재정경제부 예타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군은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등 일부 평가 항목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포 국가산단은 홍성군 홍북읍 일원 약 235만㎡(71만 평)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충남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미래자동차,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

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중간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0을 밑돌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지시하고 예타 재신청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군은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확보한 입주 수요가 계획 대비 170%에 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산업적 잠재력을 부각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LH, 충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적정 조성 면적을 재검토하고 재원 조달 구조와 투자유치 전략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은 보완 작업을 거쳐 예타 재신청을 추진하고, 2029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에 집중할 예정이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주시, 충효동·동천지구 침수예방사업

151억 투입… 하수관로 등 시설 정비

경주시가 상습 침수지역인 충효동과 외동읍 동천지구에 국비 89억원과 지방비 62억원 등 총 151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와 배수시설을 정비한다.

경주시는 ‘충효·외동(동천)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을 다음 달 착공해 2028년 8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지성 극한호우에 대비해 5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수립한 하수도 정비대책에 따라 추진한다. 1시간 77mm, 2시간 105mm, 3시간 126mm의 누적 강우에 대응하도록 정비한다.

충효지구는 집중호우때 충효천수위 상승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곳이다. 경주초등학교 인근 0.31㎢에 81억 6,300

만원을 들여 하수관로 1.3km를 정비하고, 분당 30㎥ 처리 능력의 빗물펌프장과 387㎡ 규모 흡수정을 설치한다.

외동 동천지구는 저지대에 노후 하수관로의 통수능력도 부족하다. 외동시장 인근 0.73㎢에 69억 4,800만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7km를 정비한다.

두 지역은 2022년 11월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2024년 3월 설계에 착수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8월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요청했다.

주남영 시장은 “침수 피해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취약 지역의 배수체계를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인천시, 17일 ‘제물포웨이브 마켓’ 개최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 원도심에서 만나는 가을 피크닉’을 주제로 제3회 제물포웨이브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캠핑존과 피크닉 테마 공간을 비롯해 지역 로컬 브랜드의 핸드메이드 제품, 다채로운 먹거리 및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56개의 로컬 브랜드가 참여한다. 피크닉 도시락, 베이커리, 디저트, 분식 등 다채로운 먹거리는 물론 지역 농산물과 제철 가공식품, 감각적인 공예품

및 리빙 소품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켓 이용객을 위한 실질적인 쇼핑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이번 행사는 마켓 방문이 원도심 관광과 지역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기획되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인천e지’ 앱 홍보부스에서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10월 18일에는 노르웨이안 크루즈 하선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와 전용 부스를 운영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과자·라면을 음료·디저트로… 식품업계, 맛의 경계 허문다

기존 제품 활용 새로운 경험 제공

할리스 ‘누룽지팝’ 신메뉴 선보여
아웃백 조니워커 위스키 조리 활용
오뚜기 ‘열라면 팝콘’ 간식 구현

식품업계의 협업 마케팅이 익숙한 제품의 맛을 새로운 메뉴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라면과 과자를 음료·디저트에 접목하는 데서 나아가 젤리와 팝콘, 스테이크 등으로 조합을 넓히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먹거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식품업체는 기존 제품의 인지도를 활용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외식·카페업체는 친숙한 브랜드를 앞세워 메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2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최근 농심과 손잡고 누룽지팝을 활용한 협업 메뉴 4종을 선보였다. 누룽지팝 특유의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음료와 디저트, 식사 메뉴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누룽지POP 할리치노’와 ‘누룽지POP



열라면 팝콘.

/오뚜기



할리스 ‘누룽지팝’ 협업 메뉴

/할리스

초코크림라떼’는 누룽지팝을 활용한 음료다. 크로플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누룽지 크림을 더했고, 쌀떡볶이에는 모차렐라 치즈와 누룽지팝을 조합했다. 과자로 즐기던 제품을 커피와 디저트, 식사 메뉴로 확장한 셈이다.

식품업체의 대표 제품을 카페 메뉴로 재해석하는 협업은 잇따르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삼양식품의 불닭을 활

용해 파니니와 샌드위치 메뉴를 선보였다. 지난 1월 출시한 ‘불닭 치즈 멜트 파니니’의 파니니 카테고리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자 8월 ‘불닭 콘치즈 파니니’와 ‘불닭 치킨 바게트 샌드위치’를 추가했다. 뽕다방도 롯데웰푸드의 초콜릿 브랜드 크런키를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 메뉴를 내놓은 바 있다.

협업은 카페를 넘어 극장과 외식 메뉴

롯데, 차세대 소재 등 모빌리티 밸류체인 소개

재팬 모빌리티쇼 비즈위크

롯데케미칼·렌탈 등 6개 계열사 참여
‘엘무브’ 콘셉트 전시… 사업역량 소개

롯데그룹이 일본 모빌리티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소재와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 그룹의 모빌리티 사업 역량을 선보인다.

롯데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리는 ‘재팬 모빌리티쇼 비즈위크2026’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인프라셀,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렌탈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롯데는 지난해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 처음 참가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기술 역량을 소개했다. 올해는 계열사별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롯데관은 ‘엘무브(L.MoVE)’를 콘셉트로 구성한다. 엘무브는 ‘롯데 모빌리티 밸류 이네이블러(L.Mobility Value Enabler)’의 줄임말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협력사의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의미를 담았다.

전시관에서는 차세대 소재부터 인프라, 물류·서비스까지 이어지는 롯데의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선보인다.

롯데케미칼은 나노·경량·재활용 소재와

도장 공정이 필요 없는 디자인 소재를 소개한다. 롯데인프라셀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박과 코팅박, 동박을 전시한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스마트톨링,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차량과 도로, 도시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수소 화물차와 자율주행 화물차, 자동 상·하차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무인화 물류체계 구축 전략을 소개한다.

롯데렌탈은 비대면 체크인과 무인 키박스를 적용한 디지털 단기관타 모델을 앞세워 일본 오키나와 시장 진출 계획을 알린다.

/김서현 기자 seoh@

LF, ‘트래디셔널 웨더웨어’ 팝업 운영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7층… 21일까지

LF가 공식 수입하는 영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트래디셔널 웨더웨어(Traditional Weatherwear)’가 국내 첫 팝업스토어를 열고 오프라인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

LF는 오는 2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트래디셔널 웨더웨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트래디셔널 웨더웨어는 지난 9월 LF를 통해 국내에 공식 출시된 브랜드다. 이번 팝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역사와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첫 오프라인 공간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팝업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7층에 약 93.3㎡(28평) 규모로 조성됐다.



‘트래디셔널 웨더웨어(Traditional Weatherwear)’ 팝업스토어.

/LF

매장에서는 한국시장을 위한 브랜드 마스코트 ‘하일랜드 카우(Highland Cow)’ 최초 공개한다. 브랜드 대표 상품인 울티נג 재킷을 비롯해 필드 재킷, 경량 패딩 등 주요 아우터를 선보이며 뱀부 우산과 캐시미어 타탄 체크머플러, 러버 소재 레인부츠와 로퍼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더본코리아 홍콩반점 ‘막창짬뽕’ 출시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중식 프랜차이즈 홍콩반점0410이 대구의 대표 음식인 막창구이를 활용한 신메뉴 ‘막창짬뽕’을 출시했다.

홍콩반점은 지역 특색을 짬뽕 메뉴에 반영하는 ‘팔도 홍콩반점’ 프로젝트의 네 번째 메뉴로 막창짬뽕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대구 10미(味) 중 하나인 막창구이에서 착안했다. 막창을 된장 베이스 소스에 찍어 먹는 지역 식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소하고 얼얼한 국물에 한 번 튀겨낸 막창을 올렸다.

막창짬뽕은 오는 21일까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홍콩반점에서 한정 판매한다. 22일부터는 대구와 포항·김천·경산·안동 등 경북 일부 지역 매장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시즌 메뉴로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희귀질환자 특수식 부담 덜다

저단백밥 수급 안정화 나서

CJ제일제당이 질병관리청·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구축한 특수식 구매 지원체계를 통해 성인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등의 저단백밥 수급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환자들은 기존 해외 직구나 웃돈 거래 대신 정해진 가격에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은 민·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희귀질환자 특수식 구매 지원체계’를 통해 19세 이상 환자에게 ‘햇반 저단백밥’을 개당 1700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환자들은 분기별 사전 주문을 통해 연간 최대 1248개를 정기배송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지원체제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848만~141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햇반 저단백밥은 페닐케톤뇨증(PKU)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자를 위한 특수식이다. 일반 밥보다 단백질 함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해 별도의 제조 공정이



햇반 저단백밥.

/CJ제일제당

필요하며, 제조 원가도 일반 제품보다 2배 이상 높다. CJ제일제당은 2009년 제품 개발에 착수한 이후 올해로 18년째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 생산량은 약 300만개에 달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사람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은 식품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소명이자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가치”라며 “사회적 필요와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해외 거주 국민과 글로벌 희귀질환 환자에게도 특수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U, 경량패딩 등 동절기 상품군 확대

스타킹·귀마개 등 19종 순차 출시

편의점이 따뜻한 먹거리에 이어 플리스 재킷과 경량패딩 등 방한 의류까지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CU는 이달 1일부터 보온양말과 스타킹, 귀마개, 스마트폰 터치 장갑, 바람막이, 플리스 재킷, 경량패딩 등 동절기 의류 및 방한용품 19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스타킹은 기존 50D와 80D 제품에 시스루 스타킹, 기모 타이즈, 시스루 기모 타이즈 등을 추가해 상품군을 확대했다. 보온성을 강화한 보온양말은 3600원에 판매한다.

오는 22일에는 모달 팬티와 스마트폰 터치 장갑, 귀마개를 비롯해 바람막이, 플리스 재킷, 경량패딩 등 겨울 아우터를 추가로 선보인다.

햇팩은 지난달 17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한 ‘산불조심 햇팩’을 특대형, 포켓형, 패치형 등 3종으로 출시했다.

CU는 동절기 상품 판매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과도 연계한다. 협력사와 함께 유소년 피구부와 피구클럽 등에 플리스 재킷을 전달하고, 햇팩 판매 수익금 일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활동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셀트리온, 제품 믹스 개선 효과 분기 영업이익 첫 5000억 돌파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000억
고수익 제품 앞세워 분기 최대 실적
생산 효율화, 원가 구조 개선 지속

셀트리온이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5000억을 넘어섰다.

셀트리온은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000억원, 영업이익 51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8%, 영업이익은 69.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7%p 오른 34%를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고수익 후속제품의 판매 비중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매출 성장이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수익성 개선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영업이익 증가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의 판매가 고르게 확대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후속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생산 효율화와 원가 구조 개선이 지속된 점도 수익성 상승을 뒷받침했다.



셀트리온 전경.

이번 실적은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제품 믹스 개선과 원가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연간 사업 계획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분기 실적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의 판매가 확대된 결과다. 기존 제품군의 안정적인 시장 지위에 고수익 후속 제품군의 성장이 더해졌고, 현지 법인의 직접 판매 역량도 신규 제품으로 확장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4분기에도 글로벌 판매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주요국

입찰과 공급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연말 재고 확보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고, 연초 제시한 분기별 이익 목표를 3개 분기 연속 초과 달성하는 등 회사의 성장 전략 실행력을 실제로 보여줬다”며 “고수익 후속 제품군의 비중 확대와 원가 개선을 지속해 이익 성장의 질을 높이는 한편, 미국 옴리클로 출시와 유럽 공급 확대 등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4분기와 연간 사업 계획 역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조아제약, 콩고 거점으로 아프리카 의약품 시장 공략

킨메드 파마와 수출 계약
상반기 수출 78% 증가

국가별 수출 제품과 유통망을 다변화하며 해외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조아제약이 콩고민주공화국을 거점으로 아프리카 의약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

조아제약은 콩고민주공화국 의약품 제조·유통 기업 킨메드 파마와 ‘뉴헴포르테시럽’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뉴헴포르테시럽은 철 결핍성 빈혈, 철분 부족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이는 일반 의약품이다. 액상 시럽 제형을 갖춰 간편하게 복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뉴헴포르테시럽’

/조아제약

이번 수출을 통해 조아제약은 9000억 원 규모의 콩고 의약품 시장에 진입해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어지는 신규 유통 거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은 영양 불균형에 따른 철분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임신부와 여성을

중심으로 철분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의약품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아제약은 향후에도 현지 유통사와 협력해 사업 기반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실제로 조아제약은 올해 들어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조아제약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46억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1% 커졌다.

조아제약 해외영업2팀 박현규 부장은 “자사 생산 의약품의 해외 공급처를 신남 아프리카 시장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정적인 현지 유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아이오펜, 피부 회복 특화 제품군 확대

피부와 시술 후 회복 위한 더마 크림

아모레퍼시픽의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오펜가 피부와 시술 후 회복을 위한 더마 크림을 출시하며 클리니컬 그레이드 제품군을 확장했다.

아이오펜은 손상된 피부의 빠른 진정을 돕는 ‘어드밴스드 텀 프로 리페어링 밴드 크림’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술 후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불편 징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준다. 시술받은 피부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사용 1일 후 손

상된 피부 장벽 회복률은 68.8%, 일시적 붉은기 완화율은 48.6%, 거칠기 회복률은 125.3%를 기록했다.

아이오펜의 특허 출원 기술인 ‘액티브 밴드지 듀얼 리페어’를 적용해 해당 제품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면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한다. 여기에 EGF, PDRN, 베타글루칸 등 피부 재생에 효능을 갖춘 성분을 더했다.

아이오펜 관계자는 “급속 회복과 함께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특수관리급 효과를 구현하는 제품을 지속



아이오펜 ‘어드밴스드 텀 프로 리페어링 밴드지 크림’

/아모레퍼시픽

선보여 클리니컬 그레이드 영역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이청하 기자

HLB, 간암 신약 FDA 재도전

CMC 관련 문제 해소하고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재신청

HLB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허가 획득 및 상업화에 재도전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지난 9월(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간암 1차 치료제 품목허가 신청서(NDA/BLA)를 다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신청에 앞서 양사는 지난 7월 승인 발목을 잡았던 항서제약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FDA와 협의하는 등 주요 절차를 거쳐 왔다.

또 임상 연구를 통해서는 약물 유효성을 입증하며 경쟁력을 높였다.

글로벌 임상 3상(CARES-310) 결과,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 또는 전이성 간암 환자에서 23.8개월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을 기록했다. 대조군 소라페닙 15.2개월 대비 사망 위험을 36% 낮출 수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중 가장 긴 생존기간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더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됐다. 특히 정식 허가 전임에도 바르셀로나 간암 클리닉, 유럽종양학회 가이드라인 등에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우선 등재되기도 했다.

김동건 엘레바 테라퓨틱스 대표는 “제조시설 실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CARES-310 임상에서 입증된 압도적 치료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FDA 허가 심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SK바이오팜, 美서 신약 개발 전략 공유

컨퍼런스 열고 전 주기 과제 논의

SK바이오팜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제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뉴저지 및 뉴욕 지부와 함께 ‘미충족 의료 수요부터 환자 접근성까지(From Unmet Need to Patient Access)’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SK바이오팜과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 KASBP 및 제약·바이오 업계·학계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해 신약 개발 전 주기의 주요 과제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제약사가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가들과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직접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독자 개발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미국 직접 상업화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신약 개발 생태계 내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주제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



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해 뇌전증 분야의 미충족 의료수요부터 신약 연구개발, 임상 및 규제, 시장 접근 전략, 미국 상업화와 향후 사업 확장에 이르기까지 신약이 연구실에서 출발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했다. 특히, 미국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노바메이트를 성공 사례로 다룬 ‘Lessons Learned’가 큰 관심을 끌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한층 확대하고, 향후 공동 연구 및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클래시스, CCO 신설… 배정희 부사장 선임

영업·마케팅 통합 지휘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가 최고사업책임자(CCO) 직을 신설하고, 배인앤드컴퍼니 파트너 출신 배정희 부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부사장은 CCO 겸 GTM(Go to Market) 센터장을 맡게 된다.

배 선임 CCO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LG CNS 시스템 엔지니어,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모니터 그룹, 딜로이트 컨설팅을 거쳐 배인앤드컴퍼니 파트너로 재직했다. 30여 개국 시장에서 신규 브랜드 론칭과 신형시장 진입 및 확장, 유통 채널 설계를 통해 고객사의 사업 성장 및 체질 개선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배인



앤드컴퍼니의 AI·디지털 전략 부문을 이끌며 글로벌 업체들의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혁신을 주도했다.

클래시스는 배 부사장 합류를 계기로 ▲해외 핵심시장(미·중·국·유럽 등) 진입 및 성장 가속화 ▲한국 사업 리더십 강화 ▲데이터·AI 기반 GTM 오퍼레이션 및 마케팅 고도화를 실행해, 2030년 클래시스의 10억달러 매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클래시스는 지난 7월 윤준오 대표 취임 이후 시장과 고객 중심의 글로벌 확장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세경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백종현 국회의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3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30~16:0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00~16:3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16:30~17:00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글로벌 통화정책 해법 모색

태국서 G20·IMF 국제회의 참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호황과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아시아와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을 논의한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한다. 한국은행은 신 총재가 국제회의 참석과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 총재는 13일 IMF가 주최하는 총재 대담 세션인 '거버너 토크스(Governor Talks)'에 참여한다. 글로벌 AI 산업 호황과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아시아 및 국내 통화정책 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SK, AI 시대 청년 인재 키운다… 실전형 교육 승부수

2년제 비학위 '아이젠' 신설
월 300만원·1기 50명 선발
서울대 AI연구원과 진로 설계

SK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참가자가 직접 문제를 찾고 AI로 해결하는 2년제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전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SK는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SK 아이젠(SK AIGEN)'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젠은 AI와 세대(Generation)를 합친 이름으로, 내년 3월부터 2년간 전일제(Full-Time)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개인과 기업,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기획하고 수행한다. 교과목을 순서대로 배운 뒤 과제에 적용하는



SK서린빌딩 외관 전경.

대신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쌓는 방식이다.

1년 차에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AI를 활용하고 동료와 협력하는 경

험을 쌓는다. 2년 차에는 자신이 세운 진로와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관련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 SK는 필요한 멘토와 전문가를 연결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도 협력한다. 서울대 AI연구원은 사회학·경제학·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에 AI를 접목하는 기관으로, 참가자들의 인문학적 통찰과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돕는다.

SK는 참가자에게 2년간 매월 300만원의 성장지원금과 역량 교육, 개인·팀 프로젝트 멘토링,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2년간 전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운영을 맡은 SK그룹 인재육성 플랫폼 마이써니(mySUNI)는 학력이나

전공보다 기술·연구·문화예술·공공·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1기 모집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 절차를 거쳐 12월 말 50명 인파를 선정한다. 오는 28일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 홀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연다.

박상규 마이써니 총장은 "SK는 AI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우고 싶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젠'을 준비했다"며 "SK는 매년 참가자를 선발해 '아이젠'을 SK의 대표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문화축제 1만명 발길

명동 일대에서 나흘간 행사 개최

서울 명동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복합문화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개최한 '2026 ONSO FESTIVAL'에 누적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ONSO FESTIVAL은 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온드림 소사이어티의 대표 축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기업가정신과 미래세대 육성 철학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온드림 소사이어티 안에서 강연과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했던 기존 축제에서 벗어나 명동대성당 옆마당과 가톨릭회관 앞마당까지 무대를 넓혔다.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추가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명동의 역사적 유산을 조명한 헤리티지 전시와 스토리 투어에서는 신흥무관 학교를 세운 이회영·이시영 등 6형제의 집터와 YWCA 위장결혼식 표식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명동에 남은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며 과거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되새겼다. /이승혁 기자 sh95@

LGU+, 화담숲 가을 초청 행사 '인기'

장기고객 4만6000명 응모 열기

LG유플러스는 장기고객 대상 화담숲 초청 행사에 총 4만6000명이 응모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수목원으로,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하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활용해 장기고객에게 가을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총 5000명의 장기고객을 초청하는 이번 행사에 4만6000명이 응모해 경쟁률 9.2대 1을 기록했다. 고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화담숲 장기고객 행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



화담숲 포토존에서 고객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LG유플러스

성했다. 먼저 주요 명소 내에 스탬프 존 5곳을 운영해, 모든 스탬프를 수집한 고객에게 화담숲 기념 매그넷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포토존에는 진행요원을 배치해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msjo@

노사발전재단, 택배현장 소화기 500개 지원

노사발전재단이 택배·물류 현장에 차량용 소화기 500개를 지원하고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가을철 화재 예방이 목적이다. 재단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매 동남권 센터를 방문해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가 참여하는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차량 과부하 등 가을철 화재 위험요인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전달하고, 관할 소방서와 함께 물류센터 시설물 관리와 운송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연세 기자 kys@



1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왼쪽 2번째부터)이준영 남항푸드피어 대표, 이군신 남항푸드피어 대표, 정종구 해군2함대 참모장,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강형덕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서해 수호 해군장병 온정

중기사랑나눔재단, 제2함대 방문
브리도·운동용품 3300만원 후원

중소기업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2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3000만원 상당의 브리도와 300만원 어치의 운동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브리도는 군장병의 군생활을 응원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남항푸드피어가 후원한 제품을 전달했다. 재단은 올해 2월에도 육군 제25사단 장병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브리도를 지원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남항푸드피어는 멕시코 음식인 브리도와 또띠아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하는 전문 식품기업으로 군부대 뿐만 아니라 보육원, 복지관, 노인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사랑나눔 재단에 1억원 상당을 기부하며 중소기업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서해를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2함대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후원이 군생활에 작은 격려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진, 스포츠 물류 보폭 넓힌다

'서울레이스' 3년 연속 참여

한진이 '2026 서울레이스'의 공식 물류사로 3년 연속 참여하며 생활 스포츠 분야에서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한진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레이스'에 참가하는 약 1만 2000여 명의 러너들을 대상으로 참가에 필요한 용품을 사전에 택배로 배송했다.

특히 대규모 참가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러닝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참가용품을 정확한 배송지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이번 서울레이스 참여를 통해 한진은 스포츠 물류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을 생활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진은 그동안 스포츠 현장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물류를 수행해왔다. 지난 3월에는 서울마라톤의 공식 물류사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며 생활 스포츠 참가자들의 편의와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는 방송장비와 같은 고가·특수 장비의 운송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북중미에서 열린 국제 축구대회에 필요한 방송장비 운송을 지원했으며, 9월에는 아이치-나고야아시아간게임관련방송장비를 운송하는 등 국제 스포츠대회의 원활한 중계와 운영을 뒷받쳤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수송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국제 경주마 특수 수송을 수행하며 스포츠 분야의 특수 물류 역량도 선보였다. /김승호 기자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공공혁신심의관 장영규

부음 ▲김미연씨 별세, 김성연(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씨 시모상 = 11일 오후 3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30분. 031-787-1500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곳이 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의 편의점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2

Always

예매하기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당신의 털도 곤두섰나요?



서 선 미 의

기후에세이

침팬지의 털이 곤두선다. 낯선 무리 앞에 선 침팬지의 표정은 일그러진다. 이 불행한 감정은 다른 개체들에게 전염돼 모든 침팬지의 털이 일제히 일어난다. 무리를 감싸는 것은 진득한 분노와 공포다. 그 감정으로 일어난 털들은 이글대는 적으로 가득하다.

세계적 침팬지 연구지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는 평생 연구해온 침팬지의 '알파 수컷' 행동을 인간 사회에 빗대기도 했다. 공격적으로 군림하는 리더는 침팬지의 우두머리가 그러했듯 강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전한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매년 10월이면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말’들이 쏟아진다. 정치의 나뭇결이 종잡을 수 없는 모양새를 하고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사를 찾아보았다. 아직 험한 말들이 쏟아지진 않고 있었다. 문이 열린 지 얼마 안 되었다.

국감이 세철인 요즘, 예나 지금이나 정책 이슈보다 더 뜨겁게 언론을 달구는 이들이 있다. 리더라고 자인하는 정치인들은 험한 말

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과는 동떨어진 말들이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곧두선 털을 자신의 동맹군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배다른 형제, 폐져지 마타도어' 등 도래알처럼 셀 수 없는 조악한 언어들의 릴레이 출현은 이들의 나이며저 궁극에 할 정도다. 유지하다. 그러나 그들은 작정한 듯하다. 미디어는 분노와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주요 뉴스로 뽑아 올린다.

집단 극단화'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의견이 더 극단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을 만나면 먼저 서로를 탐색하고 같은 편을 알아본다. 그렇게 모인 무리 안에서 분노와 공포는 점점 몸피를 불린다. 정치인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깃발을 내리꽂고, 그 깃발 아래 동맹군들을 대신 모아줄 부수자들을 공공연히 불러 모은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은 깃발에 새겨진 조악한 언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깃발을 더 드세게 휘날린다.

민생의 아픔이 바람 소리가 되어 국회회를 에워싸고 있다. 국정감사는 험한 말들이 허 우적대며 민생을 밟고 지나가는 일부 국회의 원들의 자랑을 늘어놓는 쇼의 무대가 아니 다. 국감을 그런 무대로 여긴다면 그들은 허

방을 짚은 것이다. 성마름이 가시지 않는 국민들이 그들의 분노와 공포에 전염되어 털을 곤두세우고 있을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자신만이 리더라고 여기는 지금도, 긍정의 언어로 대중 앞에 설 새로운 리더는 분명 자라고 있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지금의 그리더는 한바탕 자맥질에 취해 있을 뿐이다.

지난해 10월 구달 박사는 세상을 떠났다. 사후 넷플릭스는 구달 박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에서 왜 협력이 중요한지 침팬지 사회를 빗대 강조했다. 공격적으로 군림하는 우두머리는 강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머리를 쓰고 협력하는 수컷은 훨씬 오래 살아남는다는 구달 박사의 생각을 이해하며, 한국 정치에 리더의 자질을 묻는다. 구달 박사의 말은 이어진다. 어떤 변화를 만들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극진한 말이다. 이 말을 국정감사에 임한 정치인들은 기억해야 한다.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아직은 초입이라 뚜렷한 성과를 말하기엔 이르다. 갈 길이 멀다. 부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래의 지표로서의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되길 바란다. 요령부득의 기후위기 정책이 아닌 결구한 진심이 열고 맺음하는 2026년 국정감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혁신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위기라던 지스타, 더 큰 게임쇼로의 진화가 시작됐다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지스타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불참이었다.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들의 반자리를 두고 행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자 역시 비슷한 시각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스타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올해 지스타가 오히려 더 큰 무대로 도약할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참가 기업의 다양성이 있다. 올해 지스타에는 크래프톤과 웹젠, 팀42 등 국내 게임사를 비롯해 호요버스와 넷이즈 게임즈, 세가, 코에이 테크모, CD 프로젝트

레드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크랙'이 비게임사 최초로 메인 스폰서를 맡고 현대자동차, KT, 유니티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도 합류한다.

이는 단순히 게임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다. 게임을 중심으로 AI와 플랫폼, 모빌리티, 콘텐츠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글로벌 게임사들의 참여 확대는 국내 PC·콘솔 게임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오랫동안 모바일과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PC와 콘솔을 아우르는 멀티플랫폼 전략이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글로벌 게임 콘텐츠는 국내 이용자들의 경험을 넓히고 개발사에도 새로운 시장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스타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신작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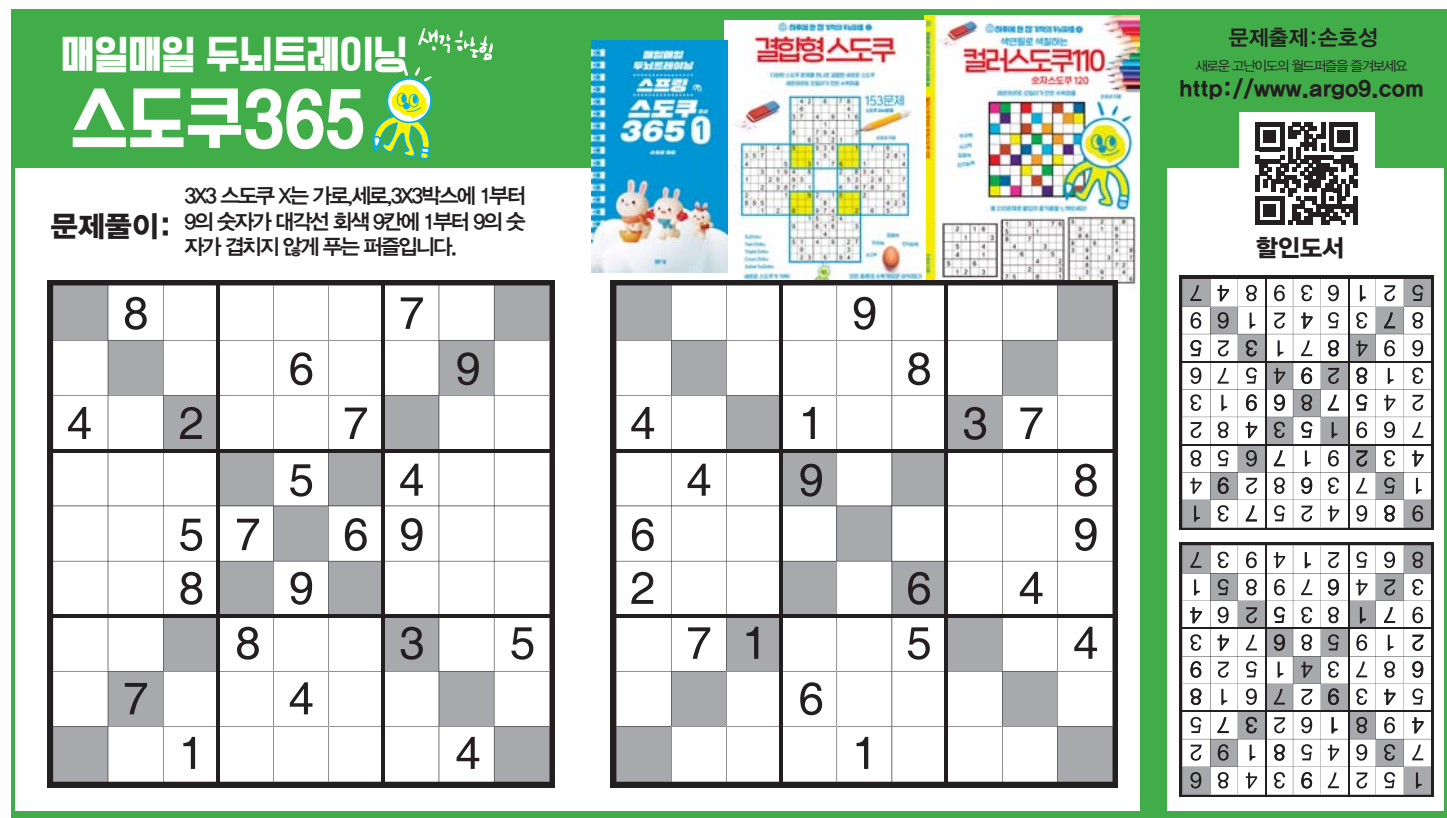
와 체험을 넘어 게임 개발사와 플랫폼 기업, 투자자들이 사업 협력과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이 지스터를 아시아 시장 공략의 주요 무대로 선택할 가능성도 기대할 만하다.

물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불참은 아쉽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참가 여부만으로 지스타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세계적인 게임쇼의 경쟁력은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 지스타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다. 국내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고 PC·콘솔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저변을 넓힐 기회다.

지스타는 이제 과거의 성공 방식을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고 있다. 지스타의 변화를 위기가 아닌 진화로 바라봐야 할 이유다.

/vitna@metroseoul.co.kr



김상회의 四季

수(數)의 신비

세상은 신비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풀지 못한 숙제가 많다. 옛날에 비하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여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직접 탐사선을 보내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지금도 UFO의 진위나 실체에 대하여 자신있게 밝혀진 것이 없다.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숫자적 계산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용자끼리의 약속일 뿐 실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의 진정한 의미와 발생에 관해서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생활상의 필요에 의한 셈법은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수의 탄생은 연산을 가능하게 하고 연산은 또 다른 분야로 확장되어져 후일에는 수학(數學)이 되어진 것이고, 이 수학은 모든 영역에 실질적으로 기본이 되고 더 나아가 독자적인 철학이자 학문을 구가하게 되었다.

필자는 수의 발생부터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수가 단순히 연산적 역할에서 계산의 바탕이 되는 것 이상으로 천지자연을 포함한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고 풀이해내는 과정에도 수만큼 기본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고대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수(數)는 “우주의 모든 것은 숫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운명 역시 숫자의 진동으로 풀이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태양을 비롯한 행성과 저 먼 별의 움직임 모두 수학적으로 분석하고는 이를 점성술로 발전시켰다. 즉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이 직각 삼각형을 이루는 것에 기인해 그는 사람을 12가지로 분류했다.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모두 더하고 다시 그 합을 더하여 피타고라스 숫자를 정의하고 발전시켜 피타고라스 점성술을 탄생시켰다. 이는 소강절 선생의 매화역수와도 닮았고 동양의 삼십십이지 분석과도 통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매보다 뚝 전세 상승률… 입주물량 감소에 하락효과 둔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8.35%↑
매매 상승률 보다 0.04%p 높아
4분기 서울 입주물량 6분의 1 수준
국감서 수도권 착공 목표 미달 전망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해 들어 매매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지 입주로 서초구 전셋값은 하락했지만 서울 전체에서는 오히려 이어지고 있다. 연말 입주 물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예정인 가운데, 신규 입주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마저 지역과 수급 여건에 따라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5일 기준)까 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8.35% 올랐다.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8.31%)보다 0.04%포인트(p) 높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 1.87%와 비교하면 약 4.5배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10월 첫째 주 서울의 전셋값은 0.16% 상승했다. 성북구와 성동구가 각각 0.31%, 노원구가 0.30% 올랐다. 반면 서초구는 0.21%, 강남구는 0.02%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초구가 대단지 입주물량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전셋값은 8주 연속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대단지 입주를 앞두면 집주

인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변 전셋값을 누르는 '입주장 효과'가 나타난다. 세입자를 구하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늘어나 신축뿐 아니라 인근 기존 아파트의 보증금도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전셋값이 일률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공급 충격에 대한 가격 반응의 이질성'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에 따른 전셋값 하락 효과는 단지 반경 500m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범위를 1km로 넓히면 효과가 약해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사라졌다. 이미 전세 공급이 충분한 시장에서는 신규 입주가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키웠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입주가 진행돼도 하락 효과가 제한됐다. 대단지 입주만으로 주변 지역의 전세 불안까지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연말 곳곳에서 분양시장이 열리지만 입주 물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분기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3만5482가구다. 반면 직방이 집계한 같은 기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6가구로 지난해보다 50.6% 감소한다. 서울은 2만4992가구에서 4398가구로 줄어 지난해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일부 대단지 입

주가 이어지더라도 서울 전체의 공급 감소를 메우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공급 부족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던져졌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에 대해서도 모든 물량 달성은 어렵고, 목표의 80~88%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분양이 시작돼도 실제 임대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입주 물량이 전세 수요에 빠르게 흡수되면 가격 하락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

한편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연말까지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며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서울 아파트 계약해제 급증에 시장교란 우려

5년간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 14만건
서울 해제율 7.7%… 5년새 2배 상승
시세 부풀리는 '집값 띄우기' 의혹 제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가 취소·해제한 건수가 14만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해제율이 10%를 웃돌면서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초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가운데 계약 해제 건수

는 14만202건으로 집계됐다. 누적합계 해제율은 5.27%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2%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2025년 6.71%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시도별 해제율은 ▲세종 6.45% ▲제주 6.38% ▲부산 6.16%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의 경우 해제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율은 2021년 3.41%에서 2025년 7.66% 2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자치구별로는 작년 기준 ▲구로구 10.33% ▲성동구 10.32% ▲중구 10.12% 등이 10%를 웃돌았다. ▲용산구 9.39% ▲강남구 9.31% ▲강동구 9.03% 등도 해

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가에 거래를 등록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혹도 제기되어 왔다.

황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해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전세피해 4.2만건… 10명 중 7명 '20·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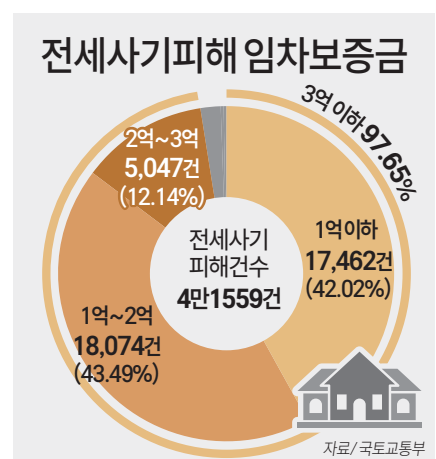
전세피해 임차 보증금 98%, 3억 이하
수도권에 집중… 다세대주택 가장 많아

전세사기피해가 4만1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40세 미만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으로는 4만1559건이다.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와 1억원 이하가 각각 43.49%, 42.02%를 차지했고,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2.14%로 그 뒤를 이었다.

임차인들은 내국인이 98.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0.70%로 절반을 차지했고,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25.1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0.7%가 집중됐고, 그 밖에 대전과 부산이 각각 11.0%, 10.2%였다. 주택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18.8%) 등이었으며, 아파트의 비중도 13.3%로 낮지 않았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호다.

/안상미 기자

LH 부채 4년 뒤 372조 전망… 재무부담 가중

국토부 국감서 LH 부채 증가 문제 지적
3기 신도시 등 공사물량 증가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2030년 37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자금 회수 시기가 늦어지는 데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까지 누적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메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시하며 LH의 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 의원은 "2026년 부채가 197조원인데 불과 4년 뒤인 2030년에는 37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3기 신도시와 그 이후 지정된 신도시의 보상 물량과

공사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선행 투자 부담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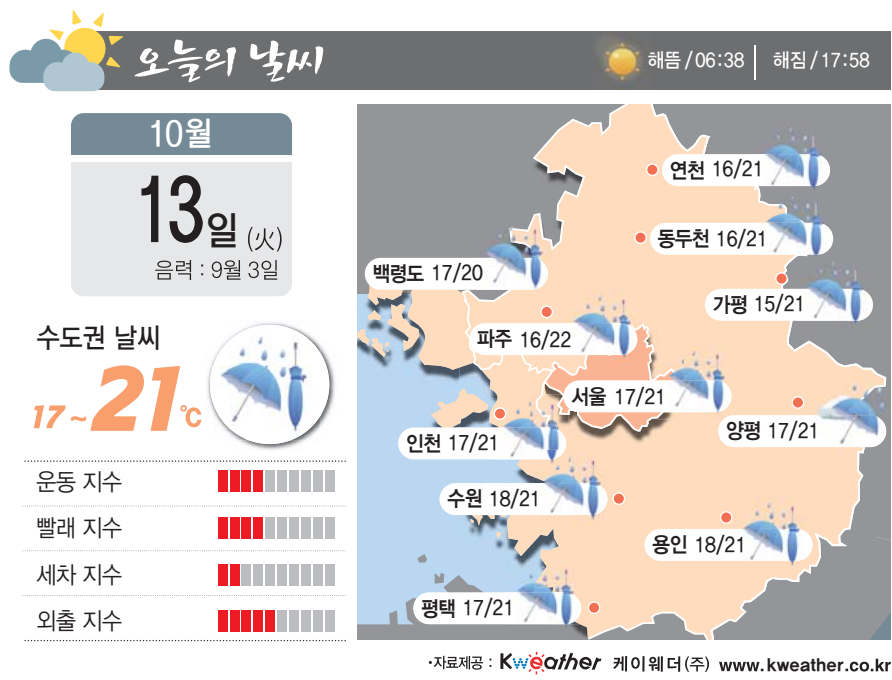
유 의원은 LH의 택지 직접 시행 확대가 부채 증가뿐 아니라 기존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자금 회수 기간에 따른 부채 증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건설 원가와 아파트 공사비가 올라 개발 부문에서 수익이 많이 나와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인 손실 문제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부채 증가가 예상되고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日서 AI 악용 해킹 확산…예약정보 유출·물류 차질
▲AI 버블, 언제 꺼질까…“수요보다 AI 가격이 결정할 것”

/사진 뉴시스

▲어린이 123명 숨진 이란 학교 공습…팔란티어 “인간 실수 가능성”
▲日 “北, 탄도미사일 최소 2발 발사…1발, 변칙 궤도 비행 가능성”

▲美 10년물, 올해 말 5.1% 찍고 내년 말 4.78%…고금리 오래 간다
▲美, 우크라이나 전방위 압박…“무기도 안 준다” 위협



과자·라면을
음료·디저트로
맛의 경계 허문다
L1

metro®

Life

셀트리온
분기 영업이익
첫 5000억 돌파
L2



청년의 첫 출근부터 숲의 새 생명까지... 함께 키워가는 내일

하나증권의 사회공헌을 관통하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 장애인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건강과 진로를 돌볼 기회를 전한다. 임직원이 나눈 경험은 대학생을 거쳐 아동과 청소년의 배움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성장이 또 다른 사람의 내일을 돕는 나눔이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증권은 이 약속을 꾸준한 동행으로 채워간다. 계절마다 이웃을 다시 찾는 봉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해안 정화, 생태계 보전과 탄소금융까지. 사람을 키우고 인연을 이어가며, 일상 가까이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하나증권

장애인 직무 마련부터 교육·채용까지
안정적인 자립 돕는 단계별 지원 설계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취업준비청년 건강검진, 멘토링 지원
임직원-대학생-청소년으로 배움 이어

정기적 봉사로 지역복지시설과 동행
임직원 가족들과 영종도 해안 플로깅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 푸른 숲 조성
해외사업서 확보한 탄소배출권 활용

◆함께 일할 수 있도록...교육부터 정착까지 있는 일자리

청년의 자립을 돕는 일은 일할 기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하나증권은 장애인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마련하고 교육부터 채용, 입사 후 정착까지 연결하는 청년친화 고용 모델을 구축했다. 업무를 익히는 과정과 실제 직장생활 사이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나증권 실무진이 참여하는 현장 밀착 교육을 운영한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 뒤에는 직무 적응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담 장애인 담당자도 지정해 입사 이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험 운영을 통해 인사실과 인재개발실 등에 채용된 장애인 청년들은 임직원 교육 프로세스와 인사 데이터 입력 등 정확성과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 과정에서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채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은 금융투자협회가 진행한 금융기관 청년고용 간담회에서 주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장애인 청년들과 기존 직원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ESG 고용 모델을 고민했다"며 "장애인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와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생산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청년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이해도 중요하다. 하나증권은 채용 지원과 함께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시각장애인 전문예술단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 더하기 우리'를 진행했다. 임직원 200여명이



지난 6월 26일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시각장애인 예술단 '한빛예술단'이 공연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지난 4월 18일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해안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음악 공연을 관람하고 전문 강사의 교육을 들으며 장애인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의 도약 돕는 하나증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활을 돌볼 여건도 중요하다. 하나증권은 청년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검진과 진로·취업 멘토링,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지원은 2023년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연계해 시작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2024년에는 100명을 지원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92점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을 120명으로 늘렸다.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현직자의 경험을 접할 기회도 마련했다. 서울시 청년정책박람회와 취업멘토링페스타에서는 '커피챗 타임'을 통한 현직자 멘토링과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서울광역청년센터와는 2024~2025년 총 8회에 걸쳐 청년 약 700명에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하나증권 청년봉사단'은 이러한 배움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 임직원이 대학생에게 진로와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자립준비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을 지도한다. 2024~2025년 총 10개 팀이 운영됐다.

임직원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눌 기회가, 대학생에게는 진로를 고민하고 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된다. 아동과 청소년은 학습 지도를 받으며 성장의 도움을 얻는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 가진 역량을 보태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 지원과 미래세대 교육을 하나의 활동 안에 담고 있다.

◆단발성 아닌 '지속연결'의 약속

세대 간 나눔이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활동이라면, 지역사회 봉사는 꾸준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살피는 일이다. 하나증권은 본점 주관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지속연결' 봉사를 운영하고 있다.

봄에는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나들이를 함께하고, 여름에는 충남 금산의 아동양육시설 향림원을 찾아 물놀이와 급식 지원 봉사를 진행한다. 가을에는 청주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돕고, 대구 중증장애인시설 애광원에서는 산책과 말벗 봉사에 참여한다. 겨울에는 인천 쪽방촌에 연탄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 2023년부터 이어온 활동으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이웃의 필요에 맞춰 찾아간다.

본부와 부서 단위에서도 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증권은 2024년 3월부터 22개 기관과 결연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1인 1봉사'를 마친 본부의 연계 사회복지시설에는 회사가 소정의 기부금을 더해

직원들의 참여를 뒷받침한다.

FICC본부는 청파노인복지관을 매월 두 차례 이상 찾아 급식 지원을 이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서울시의장 표창을 받았다.

하나증권은 기존 시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공헌처를 탐색하는 '새로연결'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익숙한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참여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해안의 쓰레기부터 숲의 생명까지...금융으로 보태는 환경 실천

이웃을 돌보는 활동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지키는 일로 확장됐다. 하나증권은 2024년부터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등을 함께해온 하나금융티아이와 인천 영종도 해안 플로깅을 진행했다. 지역의 해양·갯벌·도시 생태계 보전 활동을 이어온 인천녹색연합도 참여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해변에 밀려온 폐플라스틱과 페트병, 비닐, 스티로폼 조각을 수거하고 산책로와 제방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했다. 해양 오염을 줄이는 정화 활동이자, 생활 속 쓰레기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피는 자리였다.

생태계 보전에는 전문가와의 협력도 더한다. 하나증권은 지난 4월 국립수목원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생물 연구와 서식지 보전, 희귀종 복원 및 방사 등을 협력 분야로 삼았다. 국립수목원과 함께 추진하는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도 그중 하나다. 앞으로 임직원과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체험형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 현장을 돌보는 활동과 함께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환경 사업도 지원한다. 하나증권은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사업과 인도 조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모목 260만 그루 식재를 완료했다. 온실가스 흡수와 생태계 보존에 더해 지역사회 고용기회 창출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해외 사업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내의 환경 실천에도 활용됐다. 하나증권은 대전하나시티즌의 '탄소중립 실천 축구 경기' 추진 과정에서 직접 감독 외의 잔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 프로젝트의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상쇄 업무를 수행했다.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금융 역량을 구단의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한 사례다.

하나증권은 장애인 청년 채용과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가며 참여형 환경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회사의 지원, 이웃을 다시 찾는 직원들의 시간, 생태계를 지키는 전문가의 역량을 모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해 가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AG 2연패' 안세영, 다시 세계 무대로...덴마크·프랑스오픈 출격
▲'어깨 부상' 수영 김우민, 수술 피했다...전국체전 건너뛰고 재활 전념
/사진 뉴스스

▲농구연맹, 'AG 금메달' 남자 농구팀에 포상금 1억원 지급
▲KIA-LG, 오늘 '3위 결정전'...14일 막 오르는 '가을야구'

▲태권도 기대주 김향기, 파리 그랑프리 여자 49kg급 은메달
▲'아시아게임 금메달' 베스테를로 양민혁, 벨기에 무대에서 데뷔골